

<자료집>

광주환경운동연합
2011년 정기총회

- 일시 : 2011년 1월 20일(목) 18:30
- 장소 : 아모레퍼시픽 4층 강당

[정기총회 자료집 목차]

- 정기총회 식순 ... 4
- 2010년 활동일지 ... 5
 - 감사보고서 ... 15
- 2010년 사업보고(안) ... 20
- 2010년 재정결산(안) ... 68
- 2011년 조직구성(안) ... 79
- 2011년 사업계획(안) ... 82
 - 2011년 예산(안) ... 110
 - 정관개정(안) ... 115

[부록]

- 회원 생활수칙 ... 117
- 성명서 · 논평 등 ... 118
- 언론보도로 보는 우리의 활동 ... 149

[정기총회 식순]

■ 1부 Ⅱ 정기총회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서기지정
- 전차회의록 낭독
- 안건상정
 - : 제1안 _ 감사보고 안
 - : 제2안 _ 2010년 사업 및 결산 안
 - : 제3안 _ 임원선임 안
 - : 제4안 _ 2011년 사업 및 예산 안
 - : 제5안 _ 정관개정 안
 - : 제6안 _ 기타 안건
- 폐회

■ 2부 Ⅱ 다과회

- 소개 및 인사
- 다과

2010년 활동일지

2010년 활동일지

[1월]

- 2~3일 : 소모임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총회
- 4~8일 : 환경운동연합 전국 증견활동가 교육 참여
- 11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집행위 회의
- 11일 : 밝은삶맑은터 150호 발행
- 13일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 신년하례식
- 13일 : 지방선거 대응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15일 : 2009년 회계 감사
- 15일 : 전국 환경운동연합 국·처장단회의 참석
- 16~17일 : 소모임 물한방울흙한줌 제주 올레길 생태여행
- 19일 : 2010 지방선거대응 지역순회 토론회(광산구)
- 19일 : 2009년 사업 감사
- 20일 :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 21일 : 광주환경운동연합 임위원 연석회의
- 21일 :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 국민서명운동 발대식
- 23~24일 : 영산강답사, 영산강하구둑 대안 워크숍
- 28일 : 2010년 정기총회
- 28일 :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돛야구장 대응회의 참여
- 30일 :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거리서명운동(무등산 문빈정사)

[2월]

- 1일 : 지역 환경교육네트워크 회의
- 1일 :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돛야구장 대응회의
- 2일 : 영산강살리기사업 행정소송, 효력정지신청 소송 첫 심리
- 5일 : 중앙공원유스호스텔건립반대시민대책위 회의 참석
- 6일 :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거리서명운동(무등산 문빈정사앞)
- 7일 : 소모임 모래톱 정기모임 소태천-용산천-내지천 답사
- 8일 : 천주교 사제단 영산강답사 지원
- 17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집행위 회의
- 20일 :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거리서명운동(무등산 문빈정사앞) 모래톱 참여
- 20일 : 소모임 물한방울흙한줌 정기총회
- 25일 : 집행위원회 회의

- 25일 : 생명의 강 영산강도보순례 참여('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주최)
- 25~27일 : 환경운동연합 전국 동계수련회
- 26일 : 영산강네트워크 총회

[3월]

- 1일 : 천주교 영산강 순례 회원들 동참(석관정~죽산보~구진포)
- 3일 : 소모임 환경통신원 월례모임 및 4대강 중단 촉구 거리서명운동
- 4일 : 천주교 영산강순례 승촌보 문화집회
- 6일 : 영산강순례 동참. 순례 마침 행사
- 7일 : 소모임 모래톱 영산강 4대강사업 보건설 현장답사
- 10일 : 환경교육네트워크 워크숍 참여
- 13일 : 4대강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거리서명운동 (문빈정사 앞)
- 13일 : 소모임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광주천 두물머리 갯버들심기
- 15일 : 회원확대캠페인 소위원회 회의 진행
- 15일 : 중앙공원 정보공개 행정소송에 대한 조정 참석
- 17일 : 지구의 벗 국제본부 님모베시 의장 초청강연회 및 영산강 답사
- 18일 : 밝은삶 맑은터 151호 발행
- 19일 : 회원확대캠페인 소위원회 회의
- 21일 : 수완지구 “풍영정천 지킴이” 발대식 참여
- 21일 : 소모임 ‘물한방울흙한줌’ 영산강답사
- 22일 : 천주교 4대강사업반대 생명평화 미사 참여
- 22일 : 승촌보, 죽산보 인근 지하수 침수영향 검토결과 발표 및 토론회
- 23일 : 민주당 4대강저지 특위 영산강 방문에 따른 긴급 간담회(박준영, 최인기 등 운하 전도사 지방선거 배제 촉구)
- 25일 : 집행위원회+자문위원 연석회의
- 26일 : 사진으로 보는 4대강 _내일신문 남준기기자 초청강연회
- 30일 : 소모임 환경통신원, 무등산 산행 및 4대강사업 중단 촉구 거리서명운동

[4월]

- 1일 : 회원확대캠페인 발대식
- 3일 : 4대강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거리서명운동 (문빈정사 앞)
- 5일 : 영산강사업 취소 소송 2차 심리_전주지법
- 6.8.13,15.20.22.27.29일 : 기후강좌 “당신은 기후천사”
- 9일 : 환경운동연합 국처장단회의 참석
- 10일 : 회원확대 거리캠페인
- 10일 : 소모임 모래톱 광주천 생태문화학교 보따리프로젝트 / 노동실업센터 동구지역공부방
- 12일 : 영산강지킴이시민행동 기자회견 “영산강을 지켜야 4대강사업을 막아낼 수 있다!”

- 13일 : 4대강사업 찬동하는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 결정 규탄 성명
- 14일 : 박준영지사 규탄 기자회견
- 17일 : 회원확대 거리캠페인 (문빈정사 앞)
- 17일 : 소모임 모래톱 광주천 생태문화학교 두암중학교
- 18일 : 소모임 물한방울 흥한춤 지리산길 운봉~주천구간 답사
- 21일 : 광주전남 노회(기독교) 영산강지킴이 기도회 지원
- 22일 : 영산강지킴이시민행동 광주시장, 도지사 후보 4대강사업 반대 서약식
- 22일 : 집행위원회
- 22일 : 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
- 24일 : 지구의날 “금남로 차 없는 거리” 행사 - 4대강 캠페인
- 27일 : 한국기독교 장로회 광주전남노회 주최 영산강지킴이 기도회 참여

[5월]

- 2일 : 소모임 모래톱 5월 정기답사 - 풍영정천
- 7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6.2 지방선거 광주시장, 구청장, 시의원예비후보 4대강사업 반대 서약식
- 8일 : 전남대학생 4대강답사(낙동강답사) 지원
- 9일 : 한의사모임 길벗과 공동으로 영산강주민대상 의료봉사
- 10일 : 회원확대캠페인 특별위원회 단합대회
- 15일 : 신입회원 '영산강 걷기 봄길 여행'
- 16일 : 5.18기념 시도민한마당 금남로 행사
- 16일 : 소모임 물한방울흥한춤 5월 정기답사 _ 지리산 운봉길 ~ 주천구간
- 17일 : 영산강사업 취소소송 재판 조정
- 18일 : 밝은삶 맑은터 152호 발행
- 19~20일 : 아시아환경포럼 개최
- 20~29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4대강사업반대 생명수호 영산강 도보순례(천주교정평공동주최)
- 23일 : 환경운동연합 호남권 회원대회 -영산강지킴이 사생결단대회
- 24일 : 지도위원 위촉식
- 28일 : 소모임 모래톱 광주천 생태문화학교 _ 남초등학교

[6월]

- 4일 : 4대강사업반대 소심공야 문수스님 추도법회 참여
- 5일 : 광주천 생태문화학교_전대사대부교
- 6일 : 소모임 모래톱 정기답사 - 광주천 본류
- 8일 : 영산강지킴이시민행동 4대강사업 중단 촉구 입장발표 기자회견
- 10일 : 5월 집행위원회

10일 : 영산강소송 재판조정
 11일 : 일본 환경운동가 미야타 유지 광주방문
 12일 : 어린이 자연나들이 _ 영산강
 12일 : 광주천생태문화학교 _ 두암중학교
 14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4대강사업중단 촉구, 박준영지사 규탄 천막농성돌입
 15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 면담
 16일 : 영산강소송- 영산강현장조사
 19일 : 도청앞 천막 박준영지사 방문, 면담
 19일 : 광주천 생태문화학교 _ 두암중학교
 20일 : 소모임 물한방울흠한줄 6월 정기답사 _ 봉하마을
 22일 : 민주당 당대표에게 박준영 출당 촉구 공문 발송
 23일 : 영산강사업 취소소송_ 영산강현장검증
 23일 : 4대강사업 대응 관련 전남 동부권 단체와 간담회
 23일 : 환경연합 전국대표자 회의
 24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NCC 주최 '영산강지킴이 기도회' 참여
 25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전남도의회 당선자 대상 영산강 현장 답사 진행
 27일 :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 영산강사업 현장 답사 대응
 28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전남 무안지역 단체 간담회
 29일 : 6월 집행위원회 회의
 30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4대강사업중단, 박준영지사 규탄 결의대회, 문화제

[7월]

1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박준영전남지사 사퇴촉구 1인시위 및 사퇴촉구문 전달
 4일 : 소모임 모래톱 7월 정기답사 광주천 원지교~광주교
 8일 :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위 영산강사업 현장 검증 및 간담회장 앞 사업중단 캠페인
 10일~11일 : 2010년 전국 환경운동연합 회원대회 (경남 창원부곡)
 14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박준영지사 규탄 천막농성 마무리 기자회견
 16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대표자 회의
 17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영산강사업 관련 민주당 정세균대표 면담
 17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문수스님 49재 추모제 참여
 18일 : 소모임 물한방울흠한줄 7월 정기답사 전북 임실 천담, 구담마을 -순창 장구목
 20일 : 영산강사업 취소소송 본안건 심리 _ 전주지법
 20일 : 중앙공원대책위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 요구서 광주시 및 광주시의회에 제출
 23일 : 4대강사업 대응 함평군 농민회 강연
 26일 : 4대강사업대응관련 나주농민회 집행부 간담회 참석
 27일 : 중앙공원대책위 중앙공원 재설계 2011년 예산반영 계획 관련 광주시 간담회
 27일 : 나주 노안 학산리, 주민간담회 / 문수선원개원관련

- 29일 : 4대강사업반대대회위원회준비 회의
- 29일 : 밝은삶 맑은터 153호 발행
- 29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영산강 문수선원 개원법회
- 29일 : 회원의날 “생명, 그 곁에” 개최
- 30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범시민대회 제안 회의
- 31일 : 낙동강 합안보 환경운동연합 집중 현장집회 참여

[8월]

- 2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조계종 화쟁위원회 영산강 현장검증 참여
- 5~7일 : 어린이 여름캠프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 5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호독높임사업 반대 기자회견 및 현장 검증
- 6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민주당 천정배의원 간담회
- 6일 : 광주호독높임사업 관련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설명회 참관
- 8일 : 소모임 모래톱, 물한방울흙한줌 문수선원 방문 및 지킴이 활동참여
- 9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한나라당 원희룡사무총장 영산강사업 관련 간담회
- 11일 :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광주전남 시도민 행동의 날 대회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11일 : 민주당 4대강사업 대안 발표에 대한 논평
- 11일 : 전국 활동가 워크숍- 4대강사업 대응관련
- 13일 : 4대강사업중단 대회위원회 실행위원 회의
- 13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4대강사업 중단 행동 촉구관련 강운태 광주시장면담
- 15일 : 소모임 물한방울흙한줌 8월 정기답사 무안 현경면 갯벌 답사
- 17일 : 4대강사업중단 대회위원회 상황실 회의
- 19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민주노동당 4대강사업 대응 관련 현장안내 및 강연
- 20일 : 4대강사업중단대회위원회 실행위원 회의
- 20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4대강사업 대응 영암군농민회 간담회
- 20일 : 영산강지킴이시민행동 영산강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대상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공개질의
- 21일 : 전국 환경운동연합 이포보 현장 집회 참여
- 22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전국 민예총 4대강사업 중단, 영산강 순례 및 곳 공연 참여 및 지원
- 24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영산강사업 취소소송 본안 소송 증인신문
- 25일 : 4대강사업중단대회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
- 26일 : 집행위원회
- 28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문수스님 입정 90일째 산골재 참여
- 30일 : 전남대학교 학생회 영산강 답사 및 정화봉사활동 지원, 승촌보 공사장 인근에서 삼밭건

[9월]

- 1일 : 4대강사업중단 대회위원회 실행위원 회의
- 2일 : 중앙공원 정보공개소송 원고 일부 승소
- 3일 : 환경통신원 회원 대상 정기교육
- 4일 : 영산강권 지자체 단체장, 전남도의원 대상 영산강 사업에 대한 질의 결과 발표
- 5일 : 이종범교수와 함께 길떠나기 -광주호독높임사업 현장 및 가사문화권 생태문화답사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물한방울 흙한줌 정기답사)
- 6일 : 4대강사업 중단 집중행동주간 및 911대회 선포 기자회견
- 6일 : “생명평화 민주주의를 위한 원불교 기도회” (승촌보 현장) 참여
- 7일, 9일 : 4대강사업중단시도민의날 거리 선전전
- 11일 :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범시도민대회
- 13~15일 : 영산강공사현장 모니터링
- 14일 : 영산강사업 분안소송 증인신문
- 14일 : 기후보호포럼 회의 진행
- 16일 : 4대강사업중단대회위원회 대표자회의
- 16일 :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 관련 4대강사업 반대 입장 촉구 선전전
- 25일 : 사진반 디지털그 증도 출사
- 27일 : 민관합동 광주천 생태모니터링(수달조사) 참여
- 30일 : 평동공단 비정규직 노조 준비모임 영산강 승촌보 답사 안내 및 교육
- 30일 : 집행위원회 및 자문회의 연석회의

[10월]

- 1일 : 원불교 환경연대 '영산강도보순례' 동참
- 7일 : 민주노총 간부 수련회 -영산강사업 현장답사 안내 및 교육
- 7일 : 광주시의회 토론회 '수심5m가 영산강살리기인가' 참여
- 7일 : 손학규 민주당대표 영산강사업 찬성망언 규탄 성명
- 10일 : 10-10-10 기후보호캠페인 진행 (중앙공원)
- 12일 : 영산강사업 취소소송 신문
- 12일 : 밝은삶 맑은터 154호 발행
- 14일 : 기후보호포럼 “광주전남의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와 대책” (광주NGO센터)
- 9~15일 : 사진반 디지털그 전시회 “풍경에 다가서기” 진행 (서구문화센터 갤러리)
- 15일 : 환경운동연합 국처장단 회의 참여
- 16일 : 광주천문화제 “물을 이어 생명을 살리다” 진행
- 17일 : 4대강1만인답사 -333프로젝트 영산강답사 진행 (소모임 물한방울 흙한줌 정기답사)
- 19일 : 환경청 국정감사 -환경부규탄 및 환경영행평가 실시촉구 기자회견
- 22일 : 영산강하구둑 통신문 반영논의(4대강사업 추진단, 전남도) 관련 규탄 성명
- 22일 : 시민단체협의회 워크숍 참여

23일 : 회원체육대회(수창초등학교 운동장) 진행
 24일 : 333 프로젝트 -영산강답사(담양 관방제림~나주 석관정)
 27일 : 기후천사모임 (기후환경산업전 견학)
 28일 :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전남목회자 영산강현장답사 안내
 28일 : 집행위원회
 29일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 공동행동 대표자회의
 31일 : 333프로젝트- 영산강답사

[11월]

2일 : 영산강사업 취소소송 증인신문
 5일 : 박준영전남지사 규탄 및 4대강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7일 : 소모임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정기답사 (광주천 본류구간)
 12일 : 보성지역 핵발전소 후보지 거론에 따른 군수 면담 및 대책위 구성 간담회 참여
 13일 : 333프로젝트(4대강 현장답사 프로젝트)해남·광주생협 조합원 90여명 참여
 17~18일 :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 개최
 21일 : 소모임 “물한방울 흠한줌” 정기답사 (무등산 옛길)
 23일 : 성명발표_홍수예방, 수질대책, 하천 복원은 다 거짓말!- 4대강개발예산 삭감하라!
 23일 : 영산강사업 취소소송 증인신문
 25일 : 2010년 광주환경운동연합 후원의밤 개최
 25일 : 밝은삶 맑은터 155호 발행
 26일 : 4대강사업 중단과 대안 토론회
 27일 :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참여
 28일 : 핵발전소 후보지 발표에 따른 성명 발표
 29일 : 고흥지역 민주당체협의회 간담회

[12월]

3일 : 4대강사업중단공동행동 4대강예산 삭감대회 및 시민홍보전(충장로 금남로 일대)
 4일 : 영산강 답사
 3일 :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8일 :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공사중 발파로 인한 소음 피해 현장 조사
 8일 : '전남 함평2지구 영산강살리기사업 첫준공' 보도에 따른 논평
 9일 : '광주 그린 유니버시아드를 위한 전략' 토론회 개최
 10일 : 4대강사업중단공동행동 4대강예산, 친수구역법 날치기 규탄 기자회견
 10일 : 핵발전소건설저지 해남군민연합 창립총회 참여
 12일 : 소모임 모래톱 정기답사 (광주천 본류구간)
 17일 : 영산강 333답사- 부안 변산공동체
 12일 : 함평 학교면 월호리 농지리모델링 사업현장 소음피해지 조사

- 14일 :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 취소소송 최종변론
- 19일 : 소모임 “물한방울 흠한줌” 정기답사
- 20일 :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 28일 : 송년회
- 22일 : 핵발전소건설계획 대응 전국 대책회의 참여
- 29일 : 4대강사업중단공동행동 환경부 규탄 및 생명말살 4대강사업 중단 촉구대회
- 30일 : 종무식. 시민사회 합동 송년회

감사보고서

2010년 감사보고서

- 감사일시 : 2011년 1월 12일(수) 10:00~15:00
- 감사장소 : 사무실
- 감사내용 : 2010년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의
사업 및 재정
- 수감자 : 임낙평공동의장, 박미경사무처장, 이경희국장
김춘희팀장

다음과 같이 감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11년 1월 12일

감 사 오 원 만

감 사 김 정 민

□ 사업부문

- 2010년 한 해 동안 실무 역량(활동가 인력)이 축소되었음에도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지침 없는 활동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회원들의 관심으로 지속될 수 있었음.
- 또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의장단과 집행위원, 회원들이 힘을 모아 회원확대 캠페인을 비롯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600여명의 신입 회원을 가입시키는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은 2010년 사업의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음.
- 국토생태보전운동이 적극적인 이슈생산으로 활성화되지 못했고, 특별사업으로 계획했던 20주년기념 백서 발간 사업이 역량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움. 추후 여건에 따라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영산강 개발사업을 저지하는 활동에 사무처의 총 역량 - 조직, 홍보, 이슈 및 정책생산, 교육, 연대 등 - 이 집중되어 지역내 현안에 따른 활동역량의 적절한 배분이 이뤄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분야별 감사의견을 제출함.

첫째, 회원 확대캠페인을 통해 가입한 회원을 배려하는 교육과 에 멤버십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했음.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별, 마을별 모임을 조직하여 회원들이 우리 단체의 주인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함.

둘째, 이명박 정부의 개발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음에도 제동을 걸기에는 시민단체의 힘은 부족한 상황임. 이는 우리의 조직화된 힘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조직화가 대안일 것임. 영산강과 광주천 사업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일반시민,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등 계층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내용을 차별화 하지 못했음. 국책사업 대응 등의 주요 현안에 집중되어 교육과 회원 사업 등 일상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셋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 단체의 웹환경은 열악함. 현재의 홍보방식은 격월간 소식지와 웹메일, 홈페이지가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쌍방 소통방식 보다는 일방적인 홍보 방법으로 판단됨.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 웹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회원, 시민과의 '소통'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넷째, 지자체의 환경정책과 개발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안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와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함. 광주시, 자치구 등의 환경예산과 개발예산에 대한 분석활동을 통해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의 견제와 대안 제시, 대시민 홍보활동으로 환경운동의 구체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임.

다섯째, 생태문화도시만들기 사업에서 일상생활에서 접촉하는 유해 폐기물과 유해 물질인 인조 잔디 유해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건강폐해를 예방하고자 했으나 실제 진행되지 못했음. 일반시민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생활 주변의 유해 물질을 파악하여 제거하거나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함.

□ 회계부문

1. 회계처리의 투명성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및 관련 장부는 잘 정리되고 있으며, 자금집행은 계좌이체와 카드결제등의 방법으로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2. 회원확대를 위한 노력

환경운동연합 광주지부의 수입구성은 회비수입, 후원금, 사업비등이며, 이 중 회비수입이 전체수입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회원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인해 회비회원이 증가하였고, 회비수입이 전년에 비해 23백만원(18.48%) 증가하였습니다.

[회비수입]

(단위 : 천원)

구분	2010년	2009년	증감
자동이체	137,614	113,586	24,028
지로납부	4,128	3,956	172
직접납부	890	925	-35
평생회원	2,000	1,000	1,000
특별회비	3,620	5,665	-2,045
합계	148,252	125,132	23,120

회원의 증가로 인해 회비수입으로 경상비(131백만원)를 충당하고, 17백만원 정도를 사업자금으로도 활용하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향후로도 지속적인 회원확대를 통해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재원 및 근무자들의 복지재원 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사업보고 안

회원조직화 사업

□ 사업목적

- 회원이 중심이 되는 환경단체,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단체를 목표로 다양한 회원참여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조직 기반 토대 구축
- 4대강사업을 비롯한 환경현안 문제 대응에 대한 조직적 역량 확대를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
- 회원확대를 통한 조직의 재정 자립도 향상

□ 사업개요

- 회원확대캠페인을 통한 조직 확대 및 재정 자립도 향상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 참여 기회 제공
- 환경운동의 대중화 및 조직 토대 강화.

□ 사업내용

1. 회원 및 회비현황

<회원 현황_ 2010. 12. 31 현재>

회원구분	회원수	회비납부 방법	회원 수
일반회원 (회비: 5,000원)	1,630	자동이체	1704 (88%)
일반회원 (회비:10,000원)			
가족회원 (회비:20,000원)	61	지로	46 (3%)
단체,기업회원 (회비:50,000원)	17		
어린이청소년회원 (2,000원~3,000원)	121	통장/직접납부/기 타	182 (9%)
평생회원 (1백만원/1회 이상)	39		
기타	65		
계	1,931	계	1,931 (100%)

<회비수입 월별 추이>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회비/원	10,952,500	9,662,500	10,654,000	11,776,000	11,789,000	13,826,000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비/원	12,848,000	13,345,000	13,608,000	13,326,000	12,840,000	13,625,000
※ 후원금을 제외한 순수한 회비 총액 : 148,252,000원 / 월평균 : 12,354,333원						

2. 회원확대캠페인

- 기간 : 4월1일~7월16일
- 일시 : 회원확대캠페인 발대식(4/1), 거리캠페인(4/10,17), 캠페인특별위원 단합대회(5/10)
- 평가 : 2010년 상반기 동안 전국회원확대 캠페인을 전개했음. 전국대표자회의와 사무국처장단 회의 결의로 전국 1만 회원 확대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수립했음. 캠페인 결과 지난 수년 간 회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추세를 반전시켰고, 전국적으로 단일한 목표와 컨셉으로 전개된 조직활동으로서 의미가 컸음. 광주의 경우 목표치 600명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519명, 86.5% (7/21 현재)를 달성해 일정정도 효과를 올릴 수 있었음. 전국에서 광주가 모범사례로 소개되는 등 결과가 성공적이었음. 특별위원을 중심으로 회원이 회원을 가입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음. 그러나 몇 명의 특별위원의 활약이 컸던 반면, 전체적인 참여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음. 그리고 단체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회원배가,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가입,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회원가입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미숙했음. 새로운 방식을 통한 조직확대, 역량강화는 향후 과제임.

3. 회원만남행사 및 회원참여 프로그램

1) 회원 및 일반인 대상 영산강 답사 "영산강 걷기 봄길 여행"

- 일시 : 5월16일(일)
- 장소 : 영산강 일대
- 내용 : 영산강의 생태문화적 가치가 높은 장소와 4대강사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공사현장을 방문함으로써 4대강사업의 부당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회원 및 일반인 등 약 25명이 참여했음.

2) 사생결단! 호남권 환경운동연합 회원대회

- 일시 : 5월23일(일)
- 장소 : 영산강 일대
- 내용 : 호남권 환경운동연합(광주, 목포, 여수, 보성, 장흥)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4대강사업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및 도보답사로 프로그램 진행. 폭우와 강풍으로 일기가 좋지 않아 많은 회원이 함께 하지 못하고 약 80여명이 참여했음.

3) 2010년 환경운동연합 전국 회원대회

- 일시 : 7월10일(토)~7월11일(일)
- 장소 : 경남 창원 부곡 낙동강변
- 내용 : 전국의 회원 약 850명이 한자리에 모여 각 지역에서 펼쳐온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모색하는 회원대회가 총회 및 문화행사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4대강사업 현장인 학포면 본포교 낙동강변에서는 “4대강삽질을 멈춰라” 는 구호로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함.

4) 회원만남의날 “생명, 그 곁에”

- 일시 : 7월29일(목)
- 장소 : 증심사 입구 사찰음식 “수자타”
- 내용 :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회원에게 소개하며 유대감 형성을 목적으로 회원 만남의날 행사를 진행. 기존회원과 회원확대캠페인을 통해 새로 가입한 신입회원을 초대하고 음악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신입회원 및 기존회원 약 90명이 참여.

5) 광주호 가사문화권 생태문화답사 “이종범교수와 함께 길 떠나기”

- 일시 : 9월5일(일)
- 장소 : 광주호 일대
- 내용 : 조선대학교 사학과 이종범교수의 안내로 식영정, 환벽당 소쇄원 등 가사문화권 일대를 답사. 4대강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광주호 독농임사업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되고 있는 광주호 주변을 답사하며 가사문화권의 역사문화에 대해 배움과 동시에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회원 및 일반인 등 약 40명이 참여.

6) 회원체육대회 “건강한 지구, 함께 하는 오늘, 그리고 우리들”

- 일시 : 10월23일(토)
- 장소 : 수창초등학교 운동장
- 내용 : 회원들간의 유대감 형성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약 200 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즐겁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 행사 진행.

4.회원서비스

1) 회보 ‘밝은삶 맑은터’ 발행 및 발송

- 기간: 1,2월호, 3,4월호, 5,6월호, 7,8월호, 9,10월호, 11,12월호 (총6회)
- 내용: 광주환경운동연합의 활동내용 및 회원소식을 알리는 지역조직 소식지로 격월로 발행.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중점을 두기 위해 회원기고 및 소모임을 비롯한 회원들의 활동소식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

2)월간 ‘함께사는길’ 구입, 발송

- 기간 : 1월~12월 총12회
- 내용 : 환경운동연합 부설 ‘함께사는길’ 편집국에서 발행하는 월간 환경전문지를 월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중 구독을 원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발송함.

3)웹메일 발송

- 기간 : 연중, 월2회 발송
- 활동소식 및 활동계획 그리고 환경현안에 대한 내용으로 회원들에게 매월 2회를 원칙으로 발송.

□ 계획 대비 성과

- 회원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를 시도했으나 진행하지 못했음.
- 회원확대캠페인을 3개월 동안 진행했고 성공적으로 이끌었음. 그 연장선으로 회원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음.
- 4대강사업 대응에 회원들도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산강답사 프로그램을 몇 차례 진행했음.

□ 자체평가

- 회원확대캠페인 성과로 연간 총 545명 회원 증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캠페인

으로 회원확대사업을 상반기 집중할 수 있었음. 재정적으로는 캠페인 전과 비교해 월평균 약 3백만원 회비수입이 증가해 재정 안정화에 기여했음.

- 4대강사업 대응 활동에 회원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영산강 생태답사 프로그램 등 회원들이 강을 찾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차례 진행했음.
-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이 지역의 최대 환경문제여서 이에 대한 공감과 대안 모색을 위해 회원참여 프로그램도 4대강사업에 연관된 내용으로 진행된 반면 다양한 회원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못했음.

□ 과제 및 대안

- 활동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회원사업 개발
- 각종 현안문제에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 홈페이지, 웹메일, 문자 서비스 확대를 통한 소통과 참여기회 제공

[회원 소모임 운영]

<녹색감시단>

- 13명의 회원이 참여
- 택시 운전사를 중심으로 한 회원들의 모임으로 고발엽서를 통한 자동차 매연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현장 감시활동
- 각종 회원사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소모임을 확대 및 활성화 못했음.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 광주천모니터링/1월~12월
: 광주천 구간별 생태모니터링,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모니터링
- 광주천생태문화학교/4월-10월
: 전대사대부고, 두암중학교, 남초등학교, 동구 공부방
- 광주천주민문화제/10월
: 양동시장 문화센터에서 문화제공연마당 준비 및 진행

<물한방울 흙한줌>

- 매월 정기답사 진행
- 생태,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답사하여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환경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이끌어 내는 활동을 전개.
- 주요활동

월	주 제
1월	오름의 섬 제주 생태여행
2월	총회
3월	땅을 적서 구불구불 흐르는 강, 영산강 문화답사
4월	지리산길 답사 운봉-주천 구간(1)
5월	지리산길 답사 운봉-주천 구간(2)
6월	봉하마을
7월	여울과 소가 아름다운 섬진강 구담마을 '민물고기이야기'
8월	갯벌과 만나요(무안군 현장면)
9월	4대강사업 영산강 현장답사
10월	바람 부는 가을 강을 가다 (333프로젝트 참여)
11월	무등산 옛길
12월	내년 농사지을 땅 보러가기 (장성군 삼서면)

<환경통신원>

- 총 83명의 회원이 참여
- 버스 운전사를 중심으로 한 회원들의 모임으로 고발엽서를 통한 자동차 매연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현장 감시활동.
- 회원확대캠페인에 적극 참여. 지속적인 회원확대에 기여.
- 정기모임을 통해 유대강화, 각종 회원행사에 다수 참여.

<사진반 디지로그>

- 총 17명의 회원이 참여
- 사진을 매개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보존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기록하고 알리는 활동 전개
- 매주1회 정기모임, 매월1회 정기출사 진행.

월	내용
1월	총회, 나주영산포
2월	완도 장도리 새벽바다, 장보고세트장 촬영, 나주 영산포, 담양 명옥헌
3월	영광 계마항, 광양 매실마을, 송광사 법정스님 다비식, 구례산동 산수유 마을
4월	광주천 빛축제, 화순 세량지, 백양사
5월	고창 청보리밭, 보성 녹차밭,
6월	영광 계마항,
7월	구례 쌍계사, 지리산 불일폭포
8월	개인출사
9월	함평 용천사, 신안증도 염전, 지리산 피아골
10월	개인 출사
11월	고창 구시포, 선암사, 화순 일일랜드
12월	백양사, 삼천포 대교

[위원회 등 조직 사업]

1. 집행위원회 운영

－ 일자 : 2/25, 3/25, 4/22 6/10, 6/29, 8/26, 9/30, 10/28, 12/9, 1/13(총 10회)

－ 위원 : 당연직 / 박시중(집행위원장), 정용식(인사위원장), 차인수(기후보호포럼 부위원장), 정찬효(회원모임/환경통신원), 현병순(회원모임/모래톱), 김나군(회원모임/녹색감시단), 박태규(회원모임/물흙), 이경희(사무처 회원조직국장), 최지현(사무처 녹색사업국장)

선임직 / 최기호, 진재영, 최홍엽, 정두호, 고영재, 선세근, 김태중

－ 내용 : 매월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 평가 및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집행을 의결함. 2010년 총회에서 선임된 집행위원, 전근 등을 통해 집행위원 3인의 사퇴가 있었으며, 2인이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로 선임됨.

2. 지도위원 위촉 및 회의운영

－ 일자 : 5월 24일(위촉식 및 정기회의), 11월 11일(하반기 정기회의)

- 위원 : 강남구, 김낙현, 김순홍, 나의갑, 박금남, 박도하, 박동기, 박수인, 박철우, 박홍수, 서채원, 손석준, 안톤 솔츠, 유재연, 이철갑, 장봉조, 장영태, 장주선, 정원주, 정의행, 조길예, 조덕선, 조만형, 최희석, 한강석, 허달용

- 내용 : 「정관 제 17조(지도위원) 본 연합은 본 연합을 지도할 수 있는 각계 지도급 인사를 지도위원으로 둔다.」는 조문에 의거, 2010년 지도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 진행

3. 자문회의 운영

- 일자 : 3월 25일, 8월 26일, 9월 30일, 12월 9일(총 4회)

- 내용 : 고문, 감사, 부설기관 대표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매월 정례적으로 활동을 보고하고자 하였으나 비정기적으로 회의가 운영되었음.

□ 계획대비 성과

-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정례적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조직 강화를 위한 기반 다짐.

□ 자체 평가

- 집행위원회와 지도위원 회의는 계획에 근거하여 충실히 운영되었으나, 자문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되지 못하였음.

- 지도위원의 구체적인 역할과 회의 정례화가 필요함.

□ 총평

: 2010년 총회에서 선임된 신규 집행위원들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2010년 하반기 신규 집행위원 2인의 선임이 이루어짐.

광주천, 영산강 살리기 운동

[광주천 살리기 사업]

□ 사업목적

- 광주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 이후 생태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올바른 하천복원 방향 제시
- 하천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하천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주민이 주체가 되는 하천살리기 전개
- 생태하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류하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 사업개요

- 4개의 팀을 대상으로 광주천생태문화학교를 진행하고 참여한 학생 및 주민들과 함께 광주천주민문화제를 진행함. 또한 광주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 이후 변화 모니터링, 물의 날 기념 갯벌들 심기, 민관합동 광주천생태모니터링 등을 진행함.

□ 사업내용

1. 갯벌들 심기

- 일시: 3월 13일(토)
- 장소: 서방천 합류지점 두물머리 주변
- 내용: 세계 물의날을 기념하여 광주천지킴이 모래톱과 함께 서방천합류지점 두물머리 주변에 갯벌들 심기를 함.

2. 환삼덩굴 제거작업

- 일시: 4월 4일(일)
- 장소: 서방천 합류지점 두물머리 주변
- 내용: 물의 날 기념해서 식재한 갯벌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환삼덩굴 제거작업을 함.

3. 광주천생태문화학교

- 광주시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마을과 연계 광주천에 대한 이해와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함.

(1) 전대사대부고

○ 교사대상 광주천 실내교육

- 일시: 4월 29일(목)

- 장소: 전대사대부고

- 내용: 교사를 대상으로 광주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학생대상 실내 교육과 현장교육 및 표현활동에 대해 논의함. 이후 광주천에 대한 교육을 받은 교사가 현장에서 하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1,2학년 학생대상 실내교육

- 일시: 5월 27일(목)

- 장소: 전대사대부고

- 내용: 광주천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과 더불어 현장에서의 실천활동과 홍보 활동을 위해 소망을 담은 홍보판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짐.

○ 1,2학년 학생들 광주천 나들이

- 일시: 6월 5일(토)

- 장소: 광주천 두물머리 일대

- 대상: 전대사대부고 1,2학년 640여명

- 강사: 광주천지킴이, 남구시니어클럽, 북구시니어클럽 50명

- 내용: 5개의 조로 나누어 각각 시작지점을 달리 하여 답사와 홍보 정화활동등을 진행함.

- 프로그램

시간	내용
9:00	서방천 합류지점 두물머리 집결
9:00~9:20	조편성 및 인사, 일정소개
9:20~9:40	광주천 해설듣기
9:40~11:20	-광주천 걸으며 모듬별 캠페인 활동, 정화활동, 광주천모습 사진 기록하기 -광주천의 수질 및 둔치 생태 관찰하기
11:20~11:30	느낌나누기 및 뒷정리

(2) 두암중학교

○ 광주천의 하류 생태 및 물의 순환 알기

- 일시: 4월 17일(토)
- 장소: 시청사 뒤 광주천 둔치~ 하천 따라 하류쪽으로 걷기 ~ 하수처리장 견학
- 대상: 두암중학교 환경동아리반 45명/4모둠
- 내용: 시청사 뒷편 둔치에 모여 프로그램 일정과 광주천에 대한 개요, 학습내용확인, 모둠별로 광주천을 주제로 디카촬영 후 '광고- 영상편집'만들기등을 진행

○ 광주천의 중류 생태 및 사라진 지류하천 알아보기

- 일시: 6월 19일(토)
- 장소: 두물머리~ 태평교(금호생명 앞)
- 내용: 광주천의 중류. 지금은 사라진 지류하천. 교각의 형태와 양동복개가 주는 광주천 영향 알아보기

○ 광주천의 상류 생태 및 광주천의 물고기와 수서곤충

- 일시: 9월 4일(토)
- 장소: 원지교~ 설월교아래 징검다리를 건너 ~ 장수교 ~원지교
- 강사: 홍기창, 박태규, 김희련, 박행림, 조기영
- 내용: 광주천의 상류. 광주천의 물고기와 수서곤충.

(3) 동구 공부방 아이들

- 일시: 5월 10일(토)
- 장소: 광주천 상류지역
- 대상: 동구지역 공부방 아이들 40명
- 내용: 물이 대체로 맑은 상류지역의 생태를 알아보고 하천의 기능 그리고 현재 광주천이 처해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의 역할도 함께 고민해 봄

(4) 남초등학교

- 일시: 9월5일(일)
- 장소: 광주천 상류 일대
- 대상: 남초등학교 20명
- 내용: 광주천에 살고 있는 친구는 누구 누구 일까요?라는 주제로 상류지역의 생태를 알아보고 광주천의 친구를 그림으로 표현해 봄.

4. 광주천 주민문화제

- 일시: 10월 16일(토)오후 17시30분~20시30분
- 장소: 양동시장 문화센터(복개상가 뒷편건물 2층)
- 주제: “물을 이어 생명을 살리다”

- 내용: 4월부터 진행한 광주천생태문화학교에 참여한 학생들과 하천지킴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시회와 발표회를 통해 주민들과 활동내용을 공유함. 또한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됨.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함.

- 프로그램: 길놀이 두드림, 내외빈 소개, 대금연주, 판굿 공연, 활동영상 상영 (물 - 그곳에 흐른다), 두암중학교 학생들제작 영상상영, 청소년 밴드, 청소년 댄스, 어린이 판소리, 기타공연

5. 모니터링 사업

- 기간: 1월~12월

- 장소: 광주천본류 중심

- 내용: 광주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 구간별 광주천 생태변화 모니터링을 진행함.

6. 민관합동 광주천생태모니터링 진행

- 일시: 9월~12월 (4차 진행)

- 장소: 광주천 본류

- 내용: 광주천의 자연생태를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생동식물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함.

□ 자체평가

- 광주천생태문화학교를 진행하기 위해 실시한 교사 및 학생대상 사전교육은 학교환경교육과의 연계의 기회가 되었고 필요성과 한계를 생각하는 기회가 됨. 또한 숲해설이라는 지역 환경교육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시니어클럽과의 연대는 다양한 하천교육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로 하천교육의 폭을 확대하는 기회가 됨.

- 광주천살리기 운동은 소모임 모래톱과 연계하여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음. 그러나 올해 광주천지킴이들의 바쁜 일정으로 활발하게 활동이 결합되지 못함. 이후 보다 많은 인적자원 발굴을 위한 사업이 필요함.

- 광주천 상류 댐건설 논란, 지류하천 정화사업 확대, 광주천 수량확보 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어 이후 올바른 광주천의 모습을 제시하는 정책개발 및 제안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임.

[영산강지킴기사업_4대강사업 반대운동]

□ 사업 목적

- 2008년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연장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고
- 바람직한 영산강살리기, 하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함.
-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토건개발독재식 4대강사업으로부터 국토 환경 보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임.

□ 사업 개요

- 광주전남지역의 90여 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을 종교 정당 단체가 함께한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시민행동'으로 확대 조직하여 범시민대회, 조사, 토론회, 순례,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

□ 사업 내용

1. 하구둑 대안 워크숍 및 영산강답사

- 일시 : 1월 23일(토)~24일(일)
- 장소 : 영산강일대, 월출산호텔, 영암 구림마을
- 내용 : 운하반대교수모임, 4대강사업국민소송단 참여 교수, 변호사 등과 30여 명이 현장 답사를 진행함. 진정한 강살리기를 위한 대안으로써 영산호/하구둑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토론함.

2. 보건설로 인한 지하수위 영향 조사 및 발표

- 일시 : 3월 22일(월) 오후 5시
- 장소 : 광주NGO센터 교육실
- 내용 : 최소 수심 5m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보건설이 인근 지하수 상승을 불러올 것이 예측되는 바, 운하반대교수모임과 공동으로 이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발표함. 보 건설의 위험성, 무대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함임. 보건설로 인한 지하수 상승으로 침수지역이 약 9km²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적인 조사결과에 대해서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공사는 지속되고 있음.

3. 4대강사업 중단과 대안 토론회

- 일시 : 11월 26일(금) 오후 2시 ~5시
- 장소 : 광주NGO센터 대강당
- 내용 : 정부는 4대강사업 공사가 30%가 진행된 만큼 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4대강사업이 정부가 제시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 국고낭비등의 문제를 계속 유발시킬 것이므로 중단이 대한임을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4대강별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 발표함. 4대강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 예산심의가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음. 한나라당의 각성과 민주당 등 야당의 적극적인 예산저지행동도 함께 요구하는 의미도 담아 토론회를 개최함. 운하반대교수모임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이 공동으로 개최.

4. 4대강 1만인 답사운동 333프로젝트 및 시민답사

- 일시 : 9월 일, 9월 17일, 10월 8일, 10월 24일, 10월 30일, 11월 12일, 12월 17일
- 장소 : 영산강일대
- 내용 : 4대강공사현장과 강의 원형이 살아 있는 곳을 답사하여, 4대강사업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하기 위함임. 12월 현재 400여명이 답사함.

5. 영산강 순례

- 일시 : 1차_ 2월 25일~ 3월 6일, 2차_ 5월 20일~ 28일
- 장소 : 영산강일대(하구둑~ 담양 관방제림)
- 내용 : 4대강사업저지천주교연대(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공동 진행 및 지원 형태고 영산강 도보순례를 진행함. 승촌보, 죽산보 등에서 4대강사업 중단 시민대회도 개최함.

6. 박준영지사 대응

- 일시 : 6월 14일 ~7월 14일
- 장소 : 전남도청앞
- 내용 : 영산강운하에서부터 4대강사업을 찬성한 박지사를 규탄하며, 천막농성 진행. 전남도청앞에서 박준영지사 규탄대회 등 진행함.

7. 영산강사업 취소소송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전주지방법원, 영산강현장
- 내용 : 2009년 11월 26일 전주지방법원에 사업취소소송을 위한 청구서를 접수하고 2월 일 첫변론을 시작으로 매월 한차례씩 변론과 신문이 진행됨, 현장조사 및 현장 변론도 진행함. 11월 24일 마지막 변론후 2011년 1월 18일 1심판결을 앞두고 있음. 공사중지신청은 기각되었고 바로 항소함.

8. 정치권에 대한 대응

- 일시 : 4월 14일, 4월 22이라 5월 7일, 6월 8일, 6월 15일
- 장소 : 광주YMCA 무진관
- 내용 :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4대강사업중단 서약을 받음. 4대강사업을 찬성한 박준영 지사의 도시자 후보자격 박탈 촉구 기자회견과 입장발표. 강운태 시장 당선자에게 영산강사업 대응 촉구. 민주당 도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대의원 대상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인사를 선출할 것을 촉구하는 홍보전 등을 실시함.

9. 4대강사업중단을위한 광주전남 범시민대회

- 일시 : 9월 11일(토) 오후 2시
- 장소 : 승촌보 공사현장 인근 광장
- 내용 : 종교, 정당, 시민사회 등이 총 결집하여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범 시민대회를 개최함. 조직결성(4대강사업중단을위한범시민대회위원회)과정에서부터 현장 행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위별 활동, 시민대상홍보전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여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으로 승계되었고, 4대강사업 대응 후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10. 예산안 삭감촉구 대회 등

- 일시 : 12월 3일, 12월 10일
- 장소 : 충장로 금남로 일대, 광주시의회 기자실
- 내용 : 정부는 4대강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4대강주변 난개발을 위한 4대강친수구역활용법을 단독상정하려 하기도 했음. 4대강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 예산심의가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음. 이를 규탄하며 4대강사업 전액 예산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대회. 시민홍보전을 실시함. 결과적으로 예산안과 친수법 등 2011년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후속활동 전개함

11.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 촉구 서명운동

- 일시 : 1월 30일 기자회견
- 장소 : 광주YMCA무진관, 무등산 문빈정사 입구 및 각종 행사장소
- 내용 : 4대강사업중단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함.

12. 시민홍보전

- 일시 : 5월 16일,

- 장소 : 금남로, 영산강 현장
- 내용 : 5.18 시도민 한마당 금남로 행사등에서 4대강사업을 함께 이해하고 공동행동 등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홍보전을 실시함. 사진전, 영상상영 등으로 진행함.

13. 기자회견 및 성명발표

- 내용 : 한나라당, 민주당 인사, 환경부장관 등의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 찬성 발언 등에 대한 성명,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성명 논평 발표, 기자회견 20여 차례

14. 농업용저수지증고사업 반대활동

- 일시 : 8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충효동 광주호생태공원 인근
- 내용 : 광주호 독높임사업 반대 기자회견.

15. 기타 활동 및 연대와 지원

- 영산강 문순선원 개원 및 선원지기
: 7월 29일 승촌보 인근 마을에 영산강문수선원 개원, 선원지기 활동(~ 9월)
- 종교계 순례 지원
: 원불교, 개신교 등 종교계 순례 및 기도회 5회 지원
- 의료 봉사
: 5월 9일, 승촌보 공사장 인근 마을 주민 대상 의료봉사 실시- 한의사모임 길벗과 함께함.
- 개별 단체와 모임 시민답사 지원

□ 자체 평가

- 이명박정권이 최고 주력사업으로 강행하고 있는 토건식 국토개발형 4대강사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각계와 연대하여 순례, 조사, 토론회, 서명운동, 시민답사, 범시민대회(집회), 종교행사, 문화제, 기자회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전개함.
- 전국 그리고 각 계와의 연대로 저지활동을 해왔으나, 현재도 공사는 본래의 로드맵대로 추진되고 있음.
- 영산강본류사업 뿐만이 아니라 저수지 증고사업, 하구독사업 등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4대강사업을 전방위로 대응하기에 물리적인 한계도 있었음.
- 그러나 지역을 포함한 전국 여론이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은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폐해를 알리고 저지활동을 전개한 시민운동의 성과라 할 수 있음. 지역사회에서 학계, 노동, 농민, 여성, 종교, 정당 등과 연대하

여 하나의 힘으로 표출하고 목소리를 냈다는 성과가 큼. 반면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생태적 가치 실현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표출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

- 연대 강화로 4대강사업에 대한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임.

□ 과제 및 대안

- 저수지 증고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 대응필요. 광주댐 증고 등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상황임을 고려, 적극적인 저지 행동을 펼쳐야 함.

- 공사현장의 문제로 발생하는 민원-소음으로 인한 가축폐사, 분진피해 등에 대응.

-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속 고발하고, 중단을 위한 행동을 이어나갈 것임.

기후보호운동

□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의 적극적 정책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 및 자치단체의 대응활동 모니터사업 전개
- 기후보호운동을 펼칠 수 있는 회원조직을 구성하여 다양한 시민실천활동 전개
- 기후보호포럼의 중장기적인 활동방향을 수립하고 2010년의 구체적 목표수립을 통해 년중 지속적인 정책포럼 전개
- 저탄소를 명분으로 한 핵발전 및 핵에너지 확대에 대한 반핵운동 전개

□ 사업개요

-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기후보호포럼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기후보호정책을 생산하고, 구체적 실천활동을 전개하는 회원 모임을 조직화하여 다양한 홍보 및 실천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핵에너지 확산정책에 대한 감시와 대응활동을 전개함.

□ 사업내용

1. 기후강좌

- 일자 : 4월 6일(화) ~ 4월 29일(목) 총 8강좌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 내용

일자	주 제	강 사
4/6	‘시민행동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한다’	임낙평/광주환경연합 의장
4/8	기후변화대응의 국제적 추세	임성진/전주대 국제관계학과
4/13	광주의 온실가스 배출 실태	조성용 /전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4/15	광주의 숲과 기후변화	김경일/생명의숲 사무국장
4/20	기온상승과 이상기후 - 광주를 중심으로 -	김경하/광주지방기상청
4/22	광주시 기후보호정책과 성과	이정삼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
4/27	기후변화와 건강	이철갑 /조선대 산업의학과 교수
4/29*	지구는 우리의 아바타	김양현/ 전남대 철학과 교수

* 강사의 사정에 의해 강좌가 취소되어 참여자 토론으로 대체함.

- 총 33명이 접수하였으나, 18명이 최종적으로 수료하였으며, 이후 매월 1차례의 정기 모임으로 기후, 에너지 활동의 공유와 현장답사 활동 전개

2. 기후보호포럼 운영

- 일자 : 9월 14일(화)

- 내용 : 20여명 내외의 기후, 에너지분야의 전문가, 유관기관, 기업 관계자 등으로 포럼 위원 구성하여 환경연합의 기후, 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 의결 활동 진행.

3. 기후보호포럼 개최

- 일자 : 10월 14일(목), 12월 9일(목)

- 내용 : 광주전남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와 대책(10월), 광주 그린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한 전략(12월)을 중심으로 기후보호포럼 개최하여 기후변화의 이슈, 시민들의 관심사, 새로운 정책수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현상의 진단과 정책 제안 활동 진행.

4. 동아시아기후보호포럼 개최

- 일자 : 2010년 11월 18일(목)~19일(금)

- 장소 : 광주 조선대학교 모의법정 및 광주시일원

- 참여 : 한국(환경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 활동가 30명), 일본(11명), 중국(9명)

- 내용 : 한중일 온실가스배출과 기후정책에 대한 발표, 3개국 온실가스 감축사례, 한중일 기후정책의 문제점과 동아시아 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함. 한중일 기후정책의 비교와 기후NGO 활동가들의 연대의 시간 마련됨. 공동연대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광주선언문과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합의 도출

- 참여단체 :

<한국>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녹색교통, 푸른광주21협의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에너지정의행동, 시민환경연구소, 푸른광주21협의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중국>북경시조양구환우과학기술연구센터, 자연지우, 중국농업대학, 북경시지속가능발전촉진회, 중국과학원과학기술정책관리과학연구소, 회사위사, 중경시녹색자원봉사자연협회, 북경시조양구환우과학기술연구센터, 북경국제민간조직협력촉진회/중국민간기후변화행동네트워크

<일본>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 지구온난화를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 '에도가

와' , NPO 생활공방 '날개' , 기후네트워크동경사무소, 동북대학교, 도토리환경대학교, 기옥대학

5. 핵발전 및 핵에너지 확대에 따른 대응활동

■ 핵발전소 후보지 반대 운동

- 고흥, 해남을 비롯하여 2010년 말, 정부가 선정한 핵발전소 후보지 4곳중 2곳이 전남지역임.
- 현재 대책위가 구성되어 1인시위, 군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 대책위와 공동 연대활동 전개.
- 핵발전소 유치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고흥, 해남의 군수와 군의회에 대한 면담의 활동

□ 계획대비 성과

- 상하반기 진행하고자 하였던 기후강좌사업은 하반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상반기 교육수료자에 대한 재교육 및 기후강좌의 정례화가 되지 못함.
- 기후보호포럼의 회의 운영과 포럼의 개최가 하반기에 집중됨.

□ 자체 평가

- 기후보호사업에 대한 지속적, 안정적 진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
- 한중일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을 통한 기후보호활동의 국제연대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011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동아시아 기후보호연대의 안정적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핵발전 확산 정책 등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및 각계와의 연대 강화, 핵발전 위주의 전력 정책에 대한 적극 대응이 요구됨

생태문화도시만들기

[중앙공원 유스호스텔 건립반대운동]

□ 사업목적

- 미조성공원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바람직한 공원의 미래 모습을 함께 구상
- 지난해에 이어,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이 함께 연대활동을 통해 중앙공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시민홍보활동 전개

□ 사업개요

- 2009년부터 진행된 중앙공원 내 유스호스텔 건립을 막고, 1992년 수립된 중앙공원 조성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변화된 주변환경과 시민들의 공원이용 형태에 맞는 공원을 만들어감.

□ 사업내용

1. 6.4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자 중앙공원 입장 표명활동

- 일자 : 4월 8일
- 내용 : 광주시장 후보자들에게 중앙공원의 조성계획 재수립과 사유지 매입, 개발의 방향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재수립의 필요성, 사유지의 단계적 매입 등을 통해 후보자들이 당선이후 중앙공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2. 중앙공원 내 청소년수련시설 타당성 용역보고서 정보공개 소송활동

- 일자 : ~10월 중순까지
- 내용 : 중앙공원내 유스호스텔 건립을 목적으로 한 광주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등 타당성 및 기본계획' 보고서의 정보공개요구에도 광주시가 비공개로 응해, 이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관련 정보가 공개됨.

3.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요구활동

- 일자 : 7월 20일(화)
- 내용 : 92년에 수립된 중앙공원 조성계획을 폐기하고 변화된 시민들의 활동 패턴과 중앙공원의 중요기능에 맞춰 조성계획 재수립을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2,300명의 서명을 받아, 신임 시장과 시의회에 전달함.

□ 계획 대비 성과

-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광주시에 제출하여 행정으로부터 주민요구에 따른 행정 계획을 전달 받음.
- 행정정보 공개 소송에 대한 원고 일부승소 판정을 받아, 광주시의 행정자료가 공개됨.

□ 자체평가

- 2011년 광주시 본예산에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 예산이 누락됨에 따라 2011년 추경 등에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
- 광주시의 중앙공원 재수립에 대한 감시활동의 부족으로 인해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이 늦춰지게 되었음.
- 향후 주민조직과 공동으로 예산 수립에 대한 재요구 등의 활동 전개 필요.

[푸른길가꾸기사업]

□ 사업목적

- 푸른길의 조성에서 관리로의 시민참여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마련
- 푸른길과 주변공원 및 녹지의 연결을 위한 녹지네트워크 사례 조성
- 전국 폐선부지 답사 및 폐선부지의 공원-녹지조성을 지원하는 입법제안
- 도시철도 2호선과 남광주 푸른길 중첩문제 대응

□ 사업개요

- 푸른길의 지속적인 시민참여를 위해 조성에서 관리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푸른길의 목표인 도심녹지네트워크, 생태문화공동체를 위한 방안 모색
- 남광주 푸른길과 도시철도 2호선의 중첩으로 인한 공사중단 등 현안 대응
- 폐선부지의 공원·녹지 조성 지원법 제안을 위한 전국 폐선부지 현장답사

□ 사업내용

1. 시민참여 푸른길 관리·운영 방안마련

- 일자 : 연중
- 내용 : 남광주푸른길(300여m)을 제외한 푸른길 전구간이 조성됨에 따라 조성에서 관리로의 전환 준비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개정이나 ‘푸른길공원 조례’ 제정, ‘푸른길 재단’ 설립안 등을 광주시에 제안하고 협의 진행 중

: 광주발전연구원 ‘공원관리 민간참여 방안 연구’ 참여

2. 도심녹지네트워크 제안을 위한 양림산 갈래[枝] 조성 및 점점이 답사

- 일자 : 4월~12월

- 내용 : 광주도심녹지네트워크 제안을 위해 대남로푸른길~양림휴먼시아~수피아여중고~양림산 간 ‘양림산 갈래[枝]’ 시범 조성

: 수피아여중 학생들의 참여로 녹색점간 연결과 보차분리로 안전한 녹색교통로 모델제안

: 점점답사를 통해 양림산, 제석산, 금당산 등 푸른길과 연결 가능한 녹색점 6개 구간 제안

3. 폐선부지 공원·녹지로의 활용 지원법 제안을 위한 전국폐선부지 답사

- 일자 : 8월~12월

- 내용 : 2015년까지 전국 750km 폐선부지 발생. 폐선부지의 공원 및 녹색공간으로의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 제안을 위한 현장답사

: 군산, 목포, 나주, 여수, 대구, 마산, 장항선 7개지역 답사로 지역별 활용계획 등 현황 파악

: 12월 3일 현장답사 등을 정리하는 폐선부지 현황 및 활용 컨퍼런스

: 2011년 지속적 현장답사 진행. 국회환경포럼 등과 입법안 마련 계획

4. 도시철도 2호선 대응

- 일자 : 3월~12월

- 내용 : 남광주푸른길 일부구간과 도시철도 2호선의 중첩문제로 남광주시장 상인, 도시철도건설본부 등과 간담회 진행

: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등으로 남광주푸른길 조성공사 중단상태

: 3월 18일 성명서 발표, 4월 15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등과 실무협의, 4월 21일 남광주시장 간담회, 5월 4일 남광주현안 토론회

: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시기 등을 고려 남광주푸른길 원안 조성 촉구

5. 푸른길기차 운영

- 일자 : 연중

- 내용 : 푸른길기차의 생태문화거점으로서의 활용을 제안했으나, 남광주푸른길 조성공사의 중단, 실무자 부족 등으로 6개월여 운영중단.

: 남광주아지트 만들기 등 프로그램은 일부 운영

6. 마을만들기

- 일자 : 연중
- 내용 : 주월1동 1천개의 이야기가 있는 마을만들기 연속사업으로 진행

□ 계획 대비 성과

- 푸른길의 시민관리운영의 방향과 제도의 필요성 인식 공감대 형성
- 대남로푸른길~양림산간 양림동 갈래枝 조성으로 녹지네트워크 사례와 녹색점 연결구간 6개소 제안
- 도시철도 2호선 대응은 남광주푸른길 조성과 2호선으로 인한 푸른길 훼손 등 문제제기
- 폐선부지 지원 입법제안은 7개지역 현장답사로 마무리. 이후 지속적으로 현장 답사와 입법제안 연계진행
- 푸른길기차 운영중단, 남광주푸른길 조성지연으로 푸른길기차의 생태문화거점 활동 부족

□ 자체평가

- 푸른길의 시민참여 관리운영 방향을 위한 제안과 연구 부족
- 양림동 갈래枝 조성은 보차분리로 안전한 녹색교통로에 중점을 둔 조성. 이후 녹색점간 연결방안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 필요
- 양림산, 금당산, 제석산 등 6개소 연결로 제안 성과
- 폐선부지 답사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안 및 사례 발굴
- 도시철도 2호선 대응에 있어 남광주시장 상인회와의 협조, 2호선 전반 문제제기와 연대 부족.

지속 가능한 교육 사업

□ 사업목적

- 환경교육의 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
- 통합적인 환경교육을 실시, 삶속에서 실천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함.
- 교육을 통한 조직화

□ 사업개요

- 어린이 자연나들이 3회, 여름캠프1회, 사업별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기업과 연계해 환경교육을 진행하여 자연의 지혜를 배우고 소중함을 일깨워 보존의식을 높이고자 함.

□ 사업내용

1. 어린이 자연나들이

- 일시: 6월 12일
- 장소: 영산강, 나주 이슬촌
- 내용: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산강사업현장을 둘러보고 토론했다. 봄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됨.

2. 어린이 여름캠프

- 일시: 8월 5일~7일(2박3일)
- 장소: 전북 진안 무릉리
- 내용: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살아남기” 라는 주제로 깨끗한 공기, 맑은 물로 유명한 해발 450M 고지에 위치한 무릉리에서 3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가운데 오랜 역사와 전통, 살아있는 자연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도심과 다른점조사하기, 태양광조리기 만들기, 온도차이 조사하기 등 지구온난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토론했고 다양한 체험으로 자연과 하나되는 시간을 갖음.

3. 학교 및 공부방 연계를 통한 환경교육

- 일시: 4월~10월
- 장소: 하천, 푸른길
- 내용: 전대사대부고, 두암중학교 환경동아리, 남초등학교, 공부방아이들과 연계

하여 하천, 공원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함.

□ 자체평가

- 교육전담 활동가 부재로 대상별 교육을 나누어 진행하려다 보니 우선사업이 되지 못해 다양한 교육을 기획, 진행하지 못함.
- 교육비를 100% 참가비로 충당해야 되다보니 참가자가 적을 때는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로 인해 어린이 주 프로그램인 자연나들이가 2회 연기되고 취소 되기도 함.
- 이에 자체적인 프로그램개발과 더불어 기업이나 학교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해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환경교육이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분야로 분리, 교육전문 활동가를 양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임.

[푸른광주21협의회]

1. 운영위원회 활동

- 격월로 진행되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푸른광주21협의회 사업에 대한 보고, 집행방향에 대한 논의

2. 지구의 날 기념 행사

목적

- 지구의 날 40주년을 맞아, 지구의 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지구의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개요

- 지구의 날 40주년 기념행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지구의 날 사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4월 24일 차없는 거리 금남로행사를 통해 범시민환경축제 진행.

사업내용(환경운동연합 주관 행사)

■ 시민강좌

- 일자 : 3월 17일, 3월 24일
- 내용 : 지구의 날 기념 시민강좌로 “아프리카와 기후변화/ 니노 베시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 과 “한국의 5대강을 가다. / 남준기(내일신문기자, 한국의 5대강을 가다 저자)” 강좌를 진행

■ 지구의 날 기념 금남로행사

- 일자 : 4월 24일
- 내용 : 4대강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사진, 영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함.

자체평가

- 지구의날 기념행사가 최근 침체됨에 따라 40주년을 기점으로 지구의 날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시민과 함께 기념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워크숍과 진행방식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졌으나 일부는 실행되지 못함.

과제 및 대안

- 지구의 날 기념을 위한 회원, 시민참여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금남로 뿐 아니라 광주 곳곳에서 기념행사들이 펼쳐지고, 지구의 날의 지정 의미에 대해 공유하는 교육프로그램과 홍보활동이 향후 전개되어야 함.

[시민단체협의회]

1. 운영위원회 활동

- 매월 운영위원회 회의에 운영위원으로 이경희 국장이 참여함.
- 지역 현안 사안과 연대사업에 대한 공유 및 논의

2. 희망과 대안

- 6. 2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2009년부터 시민협 내 지방선거 소위 구성
- 지방선거에 맞서 좋은후보 만들기, 정책사업, 정치독점 극복을 위한 사업전개

■ 좋은 후보 만들기

- 좋은 후보 기준 및 선정방식 논의 : 2.8~26
- 좋은 후보 심사 : 좋은 후보 선정위원회(3.19), 심사위원회(3.21/3.28)
- 좋은 후보 발표 : 1차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의회(3.23), 2차 기초의회(3.29)
- 협약식 : 3.31/ 총 25명

■ 6.2 지방선거 정책사업

- 민선 5기 시정 혁신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 핵심 정책마련
- 기간 : 4.27~5.12
- 6대분야 25개 정책 확정 : 5.25

■ 지역 정치 독점 극복을 위한 사업

-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정상화를 위해 광주, 전남지역 광역의회 선거구의 1/3 민주당에 무공천할 것을 요구
- 광역의회 일당지배 극복 기자회견 : 5.24/ 광주시의회 기자회견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

- 6월 교육감선거과정에서 친환경무상급식 공약에 따른 초, 중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활동전개

-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수립을 위한 1인시위
- 11월 1일~11월 14일

-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 기자회견
- 11월 1일 11:00/ 시청

2010년 재정결산서

2010년 결산(안) - 일반회계

2010년 결산(안)

※단위 : 원

수 입 부			지 출 부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전기 이월금		6,654,672	차기 이월금		8,616,202		
회비	자동이체	137,614,000	경상비	공과금	2,515,370		
	지로납부	4,128,000		통신비	4,061,320		
	직접납부	890,000		관리비	120,000		
	평생회원	2,000,000		정기구독료	2,288,960		
	특별(임원)회비	3,620,000		소모품및 수선	733,000		
	소계	148,252,000		비품구입	3,754,200		
후원	회보광고	2,000,000	후생복지	식사비	8,859,080		
	후원 등 기부	32,613,265		퇴직적립	5,700,560		
	소계	34,613,265		보험료	103,018,120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12,000,000	인건비		131,050,610		
	교육참가비	4,626,000	경상비 소계		131,050,610		
	소계	16,626,000	중점사업	기후보호운동	6,357,146		
기타	자료대여 판매	40,000		광주천.영산강	5,604,479		
	이자수익	7,780		국토생태보전	221,200		
	기타수익	0		생태문화도시	4,067,120		
	차입금	10,000,000		지속가능한교육	5,028,100		
	소계	10,047,780		소계	21,278,045		
	사업비			회원사업	정기총회(회보,잡지)	16,061,000	
홍보물제작,발송					10,015,700		
회원만남행사					5,840,510		
소모임지원					1,000,500		
홈페이지,자료실운영					401,500		
소계				33,319,210	조직 및 특별사업	정기총회 등 회의	3,587,060
후원의 밤				3,919,690			
20주년 기념백서				0			
중앙/지역연대				4,013,580			
소계				11,520,330			
기타	기타			차입금이자 및상환	10,409,320		
				기타	0		
수입 계		209,539,045	지출 계		207,577,515		
총 계		216,193,717	총 계		216,193,717		

2010년 결산

항목/2009/2010/증감/증감율

(단위_원)

수입부					지출부						
항목	2009	2010	증감	증감율 (%)	항목	2009	2010	증감	증감율 (%)		
이월금	8,062,242	6,654,672	-1,407,570	-17.46	차기이월금	6,654,672	8,616,202	1,961,530	29.48		
회비	자동이체	113,586,000	137,614,000	24,028,000	21.15	경상비	공과금	6,813,200	6,576,690	-236,510	-3.47
	지로납부	3,956,000	4,128,000	172,000	4.35		정기구독료	120,000	120,000	0	0.00
	직접납부	925,000	890,000	-35,000	-3.78		소모품 및 수선비	3,369,900	2,288,960	-1,080,940	-32.08
	평생회원	1,000,000	2,000,000	1,000,000	100.00		비품구입	442,000	733,000	291,000	65.84
	특별(임원)회비	5,665,000	3,620,000	-2,045,000	-36.10		후생복지	12,938,453	12,613,280	-325,173	-2.51
	소계	125,132,000	148,252,000	23,120,000	18.48		보험료	6,196,530	5,700,560	-495,970	-8.00
후원금	회보광고	-	2,000,000	2,000,000	0.00	인건비	90,204,000	103,018,120	12,814,120	14.21	
	후원금 등 기부금	38,510,060	32,613,265	-5,896,795	-15.31	소계	120,084,083	131,050,610	10,966,527	9.13	
	소계	38,510,060	34,613,265	-3,896,795	-10.12	사업비	중점사업	21,906,970	21,278,045	-628,925	-2.87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10,653,080	12,000,000	1,346,920	12.64		회원사업	25,880,390	33,319,210	7,438,820	28.74
	교육참가비	11,496,800	4,626,000	-6,870,800	-59.76		조직 및 특별사업	10,046,440	11,520,330	1,473,890	14.67
	소계	22,149,880	16,626,000	-5,523,880	-24.94		소계	57,833,800	66,117,585	8,283,785	14.32
기타	자료대여및 판매	958,500	40,000	-918,500	-95.83	기타	기타	10,409,176	10,409,320	144	0.00
	기타수익	169,049	7,780	-161,269	-95.40		※ 기타에 차입금 이자 및 상환금 포함				
	차입금	-	10,000,000	10,000,000	100.00						
	소계	1,127,549	10,047,780	8,920,231	791.12						
수입	186,919,489	209,539,045	22,619,556	12.10	지출	188,327,059	207,577,515	19,250,456	10.22		
수입계	194,981,731	216,193,717	21,211,986	10.88	지출계	194,981,731	216,193,717	21,211,986	10.88		

2010년 예결산 비교

(단위_원)

수입부					지출부					
항목	2010년예산	2010결산	증감	달성률(%)	항목	2010년예산	2010결산	증감	달성률(%)	
이월금	6,654,672	6,654,672			차기이월금	-	8,616,202			
회비	자동이체	148,320,000	142,632,000	-5,688,000	96.17	공과금	7,560,000	6,576,690	-983,310	86.99
	지로납부					정기구독료	240,000	120,000	-120,000	50.00
	직접납부					소모품 및 수선비	3,600,000	2,288,960	-1,311,040	63.58
	평생회원	5,000,000	2,000,000	-3,000,000	40.00	비품구입	1,200,000	733,000	-467,000	61.08
	특별(임원)회비	7,200,000	3,620,000	-3,580,000	50.28	후생복지	16,780,000	18,313,840	1,533,840	109.14
	소계	160,520,000	148,252,000	-12,268,000	92.36	인건비	101,700,000	103,018,120	1,318,120	101.30
후원금	회보광고	2,000,000	2,000,000	0	100	소계	131,080,000	131,050,610	-29,390	99.98
	후원금 등 기부금	50,000,000	32,613,265	-17,386,735	65.23	* 중점사업	53,000,000	21,278,045	-31,721,955	40.15
사업비	소계	52,000,000	34,613,265	-17,386,735	66.56	회원사업	39,180,000	33,319,210	-5,860,790	85.04
	민간협력사업	15,000,000	12,000,000	-3,000,000	80.00	조직 및 특별사업	19,900,000	11,520,330	-8,379,670	57.89
	교육참가비	20,000,000	4,626,000	-15,374,000	23.13	소계	112,080,000	66,117,585	-45,962,415	58.991
기타	소계	35,000,000	16,626,000	-18,374,000	47.50	차입금이자 및 상환	-	10,409,320	10,409,320	-
	자료대여및 판매	825,328	47,780	-777,548	5.79	기타사업	6,840,000	0	-6,840,000	-
	기타수익					소계	6,840,000	10,409,320	3,569,320	-
	차입금	0	10,000,000	-10,000,000	-	* 중점사업비 중 4대강운동(운하저지) 사업비는 특별회계 재정으로 분류됨.				
소계	825,328	10,047,780	9,222,452		수입	248,345,328	209,539,045	-38,806,283	84.37	
수입	248,345,328	209,539,045	-38,806,283	84.37	지출	250,000,000	207,577,515	-42,422,485	83.03	
수입계	255,000,000	216,193,717	-38,806,283	84.78	지출계	250,000,000	216,193,717	-33,806,283	86.48	

[자산 및 부채현황]

■ 현금 및 예금명세 (단위: 원)

예금종류	은행	계좌번호	잔액
보통	광주	010-107-3****7	0
보통	광주	053-107-3****1	11
보통	광주	001-107-3****3	0
보통	농협	617-01-1****6	40,000
보통	신협	08022-12-0****9	2,241
보통	광주	003-107-3****0	481
보통	광주	001-107-3****8	6,866,129
보통	광주	053-107-3****2	1,195,555
보통	광주	001-107-3****9	363,171
보통	광주	001-107-3****2	79
보통	광주	053-107-3****5	0
보통	농협	616-01-1****1	0
현금			148,535
일반회계 총계			8,616,202

■ 출자금 명세 (단위: 원)

은행	계좌번호	금액
북동신협	3-004661-****	1,074

■ 임대보증금 명세 (단위: 원)

임대인	기간	금액
북동신협	2003년3월~(2년씩연장)	50,000,000

■ 예수금 (단위: 원)

구분	금액
국민연금(12월분)	188,760
건강보험(12월분)	113,390
장기요양보험(12월분)	7,400
계	309,550

■ 집기 및 비품 명세(단위: 원) 1

NO	품 명	수량	취득년도	구입금액	비 고
1	컴퓨터1(임낙평)	1	2005	1,500,000	
2	컴퓨터2(회원용)	1	2002	1,100,000	
3	컴퓨터4(최지현)	1	2002	1,100,000	고장/폐기(2010)
4	컴퓨터6(회원용)	1	2005	400,000	
5	컴퓨터7(김광훈)	1	2005	1,000,000	고장/폐기(2010)
6	컴퓨터8(박상은)	1	2005	1,000,000	
7	컴퓨터9(박미경)	1	2004		기증/중고
8	컴퓨터10(김춘희)	1	2007	1,120,000	
9	컴퓨터11(오하라)	1	2007	1,151,000	
10	프린터1(임낙평)	1	2005	90,000	고장/폐기(2010)
11	프린터2(김춘희)	1	2001	200,000	
12	프린터3(박미경)	1	2000	200,000	
13	프린터4(최지현)	1	2005		기증/폐기(2010)
14	프린터5(김광훈)	1	2005	90,000	고장/폐기(2010)
15	프린터6(박상은)	1	2001	200,000	고장/폐기(2010)
16	프린터7(이경희)	1	2000	200,000	고장/폐기(2010)
17	프린터9	1	2005	800,000	전산봉투 출력용
18	복사기	1	2003	1,560,000	
19	팩시밀리	1	2003	1,000,000	고장/폐기(2010)
20	스탠드스크린(구형)	1	1995	100,000	
21	필름스크린(신형)	1	2005	600,000	일부 기증(이인화)
22	디지털 카메라	2	2003	700,000	1개고장/폐기(2010)
23	노트북	1	2005		기증/중고
24	일반 전화기	11	2003	300,000	4개고장/폐기(2010)
25	교환형전화기	2	2003	300,000	고장/폐기(2010)
26	키폰	2	2003	560,000	
27	사무용 책상	11	1995		기증
28	사무용 의자	11	2003	490,000	
29	컴퓨터 책상	7	2003	50,000	2개고장/폐기(2010)
30	철재 유리책장	2	2003		기증
31	교육용 책상	11	2002	110,000	
32	앵글형 책장	3	2002	60,000	
33	백색 5단 책장	2	2002		기증
	소계			15,981,000	

■ 집기 및 비품 명세(단위: 원) 2

NO	품 명	수량	취득년 도	구입금액	비 고
34	목재 6단 책장	11	2001	950,000	
35	목재 3단 책장	6	2007	1,050,000	
36	파일박스 4단	1	2003	140,000	
37	원형탁자(대)	1	2003	200,000	
38	원형탁자(소)	1	2003	30,000	
39	원탁용 접의자	6	2002	200,000	
40	회의용 탁자	1	2000		기증
41	월계획 백색철판	1	1998	50,000	
42	강의용 백색철판	1	2000	60,000	
43	접이용 의자	42	1997	420,000	
44	슬라이드 프로젝터	1	1995	300,000	
45	OHP환등기	1	1998	200,000	
46	칼라TV	1	2003		기증
47	핸드마이크 대	1	2002	50,000	
48	핸드마이크 소	3	2003	140,000	
49	비디오꽃이 책장	2	2003	20,000	중고 구입
50	잡지꽃이	1	1996		기증
51	철재 캐비닛	2	1989		
52	팩스 받침대	1	2003	100,000	맞춤제작
53	파티션	36	2003	1,780,000	
54	냉온수기	1	2001		무상임대/폐기(2010)
55	이동용 책상	4	2003	120,000	
56	짐수레	1	2004	37,800	
57	앰프	1	2005	600,000	
58	이젤	22	2003	264,000	
59	레이저 포인터	1	2007	87,000	
60	냉난방기(RAS-11)	1	2007	1,100,000	
61	냉난방기(505FX)	1	2007	2,300,000	기증(이인화)
62	냉난방기(355F)	1	2007	1,850,000	
63	난방기(REH-221S)	1	2007	140,000	
64	잉크젯 프린터 구입	1	2009	115,000	
65	외장하드 구입	1	2009	57,000	고장/폐기(2010)
66	깃발 깃대	1	2009	20,000	고장/폐기(2010)
	소계			12,380,800	

■ 집기 및 비품 명세(단위: 원) 3

NO	품 명	수량	취득년 도	구입금액	비 고
67	냉온수기	1	2010		무상임대
68	레이저팩스CF-650	1	2010	375,000	
69	기부금함 제작	2	2010	120,000	
70	외장하드(1테라)	2	2010	238,000	
	소계			733,000	
	총계			29,094,800	

2010년 결산(안) - 특별회계

명 칭	잔 고	구 분
퇴직 적립금	7,634,470	신협계좌 3-003371-****
	39,299,410	신협계좌 3*****-3100-**
영산강운하백지화 광주전남시민행동	660,166	광주은행 003-107-3*****
광주전남케이블카반대 시도민행동	110,668	광주은행 055-107-0*****
특별회계 총액	47,704,714	

퇴직금 재정(1월~12월)

수 입 부			지 출 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43,825,212	차기이월금		46,933,870
수 입	퇴직금	9,456,660	지 출	퇴직금지급	8,223,624
	이자수익	1,875,622		소계	
	소계		11,332,282	기 타	기타지출
소계		11,332,282	소계		0
수입		11,332,282	지출		8,223,624
수입계		55,157,494	지출계		55,157,494

운하백지화(4대강사업중단) 재정(1월~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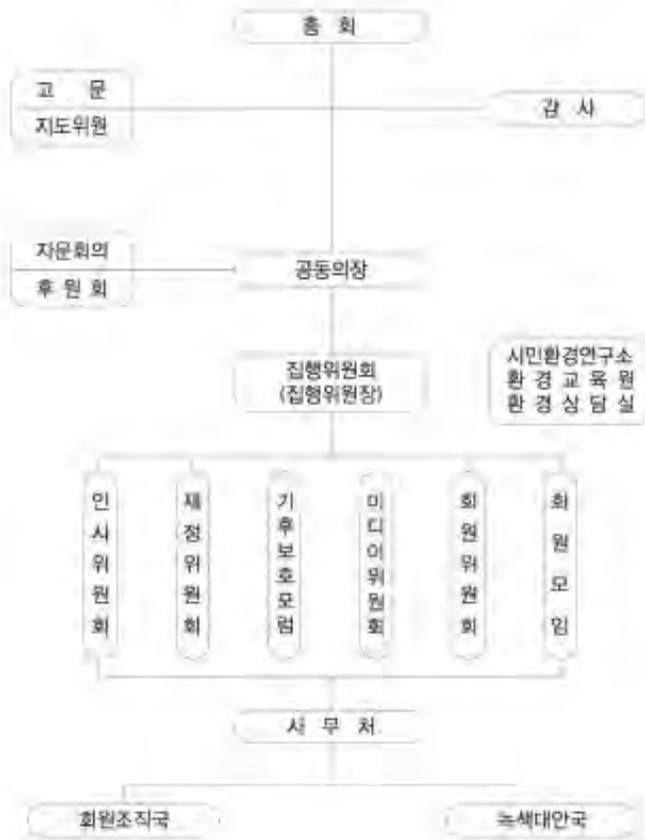
수 입 부			지 출 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1,419,271	차기이월금		660,166
수입	회비	2,180,000	사업비	토론회, 조사	1,653,450
	후원금	5,144,300		캠페인	2,108,840
	행사분담금	9,158,821		기자회견, 집회	13,198,815
	참가비	491,900		소송비	1,735,560
	소송비 후원	1,500,000		현장답사	516,700
	기타수익	351,699		회의비	370,500
	소계	18,826,720	소계	19,583,865	
		기타	기타지출	1960	
수입		18,826,720	지출		19,585,825
수입계		20,245,991	지출계		20,245,991

케이블카반대 재정(1월~12월)

수 입 부			지 출 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110,558	차기이월금		110,668
수입	회비	0	사업비	캠페인	0
	후원금	0		자료제작	0
	참가비	0		기타지출	0
	이자수익	110		소계	0
	소계	110			
수입		110	지출		0
수입계		110,668	지출계		110,668

2011년 조직구성안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직도



임·위원 인선(안)

- 고문 : 정철웅, 전홍준, 정구선, 장두석, 안행강, 송인성, 성진기, 이근우
- 감사 : 오원만, 김정민
- 공동의장 : 이정애(임기중), 임낙평(임기 만료)
- 집행위원회 : (정관상 30인 이내이나 효율성 위해 20~25인 수준으로 선임). ※집행위원장 - 박시중(임기중)
 - 당연직 : (각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사무처 국장, 소모임 회장)
 - 재정위원장 _ 집행위원장 겸임
 - 인사위원장 _ 정용식
 - 회원위원장 _ 선세근
 - 미디어위원회 _ 정두호
 - 기후보호포럼 _ 차인수
 - 녹색감시단 _ 김나군
 - 물한방울 흙한줌 _ 박태규
 - 모래톱 _ 현병순
 - 환경통신원 _ 김미수(신임 회장, 2011년)
 - 디지로그 _ 박시중
 - 사무처장_박미경, 회원조직국장_이경희, 녹색대안국장-최지현
 - 선임직 : 진재영, 정두호, 최기호, 최홍엽, 선세근, 김태중, 고영재, 송창영, 조경숙(신임), 송형일(신임), 정현오(신임)
- 부설기관
 - 시민환경연구소_ 이사장(윤장현), 소장(이인화), 연구원(최지현 *겸임)
 - 환경교육원 _ 원장(김양현)
- 사무처 : 사무처장(박미경 임기완료), 회원조직국장, 녹색대안국장
 - 이경희, 최지현, 김춘희, 박상은, 오히라츠나키, 정찬대
 - ▶ 회원조직국 : 회원관리, 총무, 교육, 회원모임
 - ▶ 녹색대안국 : 물하천, 에너지, 도시숲, 현안, 민원
 - ※푸른길운동본부 파견 : 박상은(사무국장 이경희 겸임)

2011년 사업계획 안

2011년 사업계획

□ 배경 및 전망

- 지구촌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심각한 수준의 기후 재난이 지속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 또한 고조될 것임. 그럼에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못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감량에 대한 의무와 책임, 에너지와 자원의 자국이기주의는 여전할 것임. 마찬가지로 기상재난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확대할 것이고 관련한 피해는 관계당국이 예측하지 못할 규모로 파괴적 특성을 지니며 연중 지속될 것임.

- 이명박 정부가 벌이는 토건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그 폐해에 대한 사회적 분란과 갈등이 여전할 것이며, 국민들의 피로감 역시 누적되고 깊이 적체될 것임. 반면 토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진보세력들의 대항은 멈추지는 않을 것이나 반전을 꾀할 만한 새로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세력화되지도 못한 채 국민들의 피로감에 묻히게 될 가능성도 우려됨.

- 이러한 패배감과 상실감에 따른 사회전반의 침체적 분위기가 지속되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는 진보대통합, 야권단일정당 추진 등의 다양한 시도를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음.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여론 주도층으로 조직화되어야 함. 시민들의 조직화는 환경운동단체인 우리 단체의 가장 최우선의 활동 과제이기도 함.

- 구제역과 AI 바이러스로 인해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동물이 수백만마리 살 처분되거나 생매장되는 사태를 계기로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과 육식 위주의 식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됨. 친환경 축산의 도입,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한 생명윤리적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 사업기조

1. 생태이념 확산과 시민 조직화
2. 다양한 매체 활용해 시민과의 소통 강화
3. 연대의 힘으로 녹색 사회 건설

□ 중점사업

1. 환경교육

- 생태이념이 확고한 시민들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최. 교육 이수자들을 회원 활동가 및 서포터즈로 조직화함. 특히 환경단체만의 차별화된 환경교육 구현을 위해 부설기관인 환경교육원을 특화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함. 한편 회원조직화를 위해서 회원교육과 회원모임 확대, 지역별 분야별 회원모임을 구성해 각각의 회원모임이 이슈현장 및 활동현장을 맡게 하는 현장 중심의 회원활동을 유도해 지역 환경이슈와 정책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

2. 기후보호사업

- 기상재해 현장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온난화의 심각성을 교육·홍보하고, 한중일 기후네트워크 사무국 활동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와 NGO들의 기후보호활동에 대한 교류활동을 활성화함. 특히 기후보호포럼을 통해 정책생산을 지속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민의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3. 영산강 개발사업 대응

- 지역 최대 현안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고, 광주전남의 시민단체와 전문가, 종교인, 제 야당이 참여해 영산강 개발 사업을 중단시키고 영산강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훼손지역 복원운동을 추진하는 활동을 '4대강사업 중단 광주전남공동행동' 사무국 운영을 비롯해 연중 지속함.

□ 특별사업

1.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기념 NGO 글로벌 포럼 개최

- 광주광역시와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기간에 부대행사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를 주제로 한 NGO 포럼을 10월 13일부터 3일간 개최함. 지구촌 곳곳이 기후변화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기상재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공유하고 그 극복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행사로 개최함

□ 일상사업

1. 회원조직화
2. 생태도시 만들기 운동
3. 광주천 살리기 운동

환경교육

□ 사업목적

- 환경교육의 체계화와 대중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심각한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교육을 통해 나누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함.
- 통합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개요

- 환경교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준비를 위한 교육팀을 구성하고 운영함. 또한 환경교육의 장 확대를 위한 인력양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함.

□ 사업내용

1. 환경교육원 활성화

1) 환경교육팀 구성

- 일시: 3월~12월
- 대상: 환경교육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분
- 내용: 환경교육을 체계화 시키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환경교육을 고민하고 전담할 교육팀을 구성함.

2) 환경교육 진행전문가 양성교육

- 일시: 5월~6월
- 대상: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30명
- 내용: 지역의 환경교육을 진행할 전문가 양성을 통해 지역에서 효과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지역 환경교육 어떻게 가야하나? 간담회

- 일시: 9월
- 장소: 환경연합 소회의실
- 내용: 환경교육팀 및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환경교육

의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미래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함.

4) 환경교육 실기 (찾아가는 환경교육)

- 일시: 10월~11월
- 내용: 하천, 기후, 숲, 등 분야별 환경교육 지도자를 양성하여 학교, 기업, 공부방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기획 운영해 봄, 또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환경교육에 진행팀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2. 풍덩이 어린이 환경교육

1) 어린이 자연나들이

- 일시: 1월~12월
- 장소: 광주전남지역 및 환경이슈 현장
- 내용: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보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어린이 자연나들이, 캠프 등을 진행함.

2) 요리 교실 “꼬마 장금이”

- 일시: 4월~12월
- 장소: 환경연합 소회의실
- 내용: 요리교실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농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식습관을 놀이와 함께 진행하여 스스로 개선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듦.

3. 청소년 및 대학생 환경교육

- 일시: 3월~12월
- 장소: 광주전남지역 및 환경이슈 현장
- 내용: 시간상 다양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청소년 및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 자원봉사 시간을 활용한 교육, 찾아가는 환경학교, 영산강 대탐사 같은 방학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일시: 3월~12월
- 장소: 광주지역
- 내용: 환경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기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

□ 기대효과

- 환경교육팀을 구성, 환경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고민을 통해 장기적인 환경교육의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모색하게 됨.
- 바쁜 일정으로 환경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 및 대학생을 위해 환경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천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됨.
- 자연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는 체험학습과 계절적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체계화 시켜감.

기후보호사업

□ 사업목적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되어가고 있으나 현실적인 대안과 문제해결을 위한 각계의 노력은 현재 부족한 상황임.
- 일상에서의 기후변화의 문제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필요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적응하는 도시만들기 진행

□ 사업개요

- 매월 시민, 회원이 함께 하는 이론과 현장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기후보호포럼 등의 전문가 풀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기후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활동을 진행함.
- 기후보호포럼을 통해 제안된 기후, 에너지 정책의 반영과 실현을 위한 모니터 활동과 정책포럼 등을 진행
- 에너지 문제, 기후문제의 심각성을 미래세대들과 함께 인식하기 위한 기후캠프 등을 진행

□ 사업내용

1. 기후강좌 및 기후투어 프로그램

- 시 기 : 홀수달 -기후투어 짝수달-기후강좌 진행
- 참여자 : 회원, 일반시민 등
- 장 소 : 아모레 퍼시픽 교육실(4층)과 곳곳
- 홍보방법 : 광주드림 혹은 언론사와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홍보를 통한 참여자 모집과 내용에 대한 홍보
- 조직화방안 : 준비팀 구성하여 매회 공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가 함께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

월	구분	주 제	강사 및 현장답사지역
2	이론	핵에너지는 기후변화의 대안인가? - 독일의 에너지컨셉	안톤솔츠/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전임강사
3	현장	북방한계선의 변화	임동옥 /호남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4	이론	春來不似春	
5	현장	민감한 바다, 그 변화의 속으로	여수 남해수산연구소
6	이론	지구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장재연/ 아주대학교 교수
7	현장	에너지 농사, 미래를 위한 인류 공동의 작업	에너지자립마을/ 부안 등용마을
8	이론	곤충의 역습(말라리아, 땡기열의 확대)	
9	현장	열대과일이 제주도에 주렁주렁	제주도/ 난지농업연구소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10	이론	기후변화와 재난, 그리고 안전한 삶	
11	현장	기후변화대응 기업	여천산단
12	이론	기후보호와 세계 각국의 입장	안병옥(기후행동연구소 소장)

2. 기후보호포럼 조직 활성화 및 포럼 개최

■ 포럼조직 정비 및 활성화

- 포럼 위원 추가 확대 및 회의 정례화(씩수달 진행)
- 공학의 전문가와 함께 인문, 사회영역의 전문가와 활동가 등의 추가 인선이 필요
- 포럼 위원이 포럼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획, 실행의 역할을 맡음.

3. 기후보호포럼 개최

- 격월 1회의 정기 포럼 개최
- 매회 30-40여명이 함께 할수 있도록 하며, 분기별로 시기성, 이슈화 등을 고려하여 규모있는 포럼 진행될 수 있도록 주제선정
- 기후보호포럼의 정책 제안 활동에 대한 실행여부에 대한 모니터 활동 전개
- 제안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관계기관 참여의 워크숍 등 후속 활동

■ 2011년 기후보호포럼의 주제(안)

구분	주제
2월	기후시범도시 광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타당성
4월	CCP 참여 등 기후보호 국제적 연대방안
6월	광주 전남 지역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가능성과 향후 전략
8월	광주전남의 기후적응 대응은 어떻게
10월	녹색교통의 활성화 불가능 한가.
12월	에너지 효율성 목표와 전략이 있는가-빌딩을 중심으로

4. <어린이, 청소년 대상> 기후캠프

- 기간 : 8월 중 (2박 3일)
- 장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외 신재생에너지 활용지역
- 내용 :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연구, 개발의 현장을 견학하고, 생활속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접목방법, 에너지의 소중함을 체험을 통해 배우는 프로그램 진행

□ 기대효과

-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능동적 대처를 통해 친기후적 삶의 태도로의 전환
- 도시의 과소비적 에너지 형태를 변화시킬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수립과 제시를 통해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도시정책의 변화를 이끔
- 어린이, 시민이 참여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실천활동 유도

[지구의 날 행사]

□ 사업목적

- 2011년 지구의 날 41주년을 맞아,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미술제 진행
-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전문작가와 일반시민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작품으로 표현하고 작품을 통해 지구환경에 대한 감성적 인식

□ 사업개요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작가적 고찰을 통해 작품으로 전시하고, 시민들과의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 전시활동 진행.
-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기후보호 기금 마련을 위한 아트페어전 진행.

□ 사업내용

1. 지구의 날 기념 환경미술제

- 일자 : 4월 15일~5월 29일
- 장소 : 상록미술관
- 내용 : 작가 및 일반시민들의 창작 작품 전시함. 상록미술관 내 6개의 전시관을 활용하여 전시관별 주제를 달리하여 전시함.

2. 지구를 위한 아트페어

- 일자 : 4월 14~4월 22일
- 장소 : 롯데갤러리
- 내용 : 작가들의 작품을 기증받아, 판매를 통해 기후보호 기금마련, 기후변화로 인해 생존의 터전을 잃은 기후난민에 대한 지원과 기후보호활동 기금 확보

3. 부대행사

- 일자 : 4월 20일~5월 20일
- 장소 : 상록미술관 잔디밭
- 내용 : 개막기념 환경음악회, 지구를 지키는 플래쉬몹, 기념강좌, 초록 장터

□ 기대효과

-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문화, 예술인들과 함께 환경축제에서 문화예술축제로 승화
-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의 날에 대한 시민홍보와 참여도를 높임.

[국제연대 활동]

-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운영 사업 -

□ 사업 목적

- 한중일 3개국 기후환경NGO 네트워크 사무국인 광주환경운동연합의 네트워크 운영사업의 체계를 잡고,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한중일 3개국 NGO간의 협력 기반 마련

- 각국의 기후변화정책, NGO 활동과 성과등을 공유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3개국 상호 협력

□ 사업개요

- 한중일 3개국어로 3개국의 기후환경정책과 NGO활동에 대한 공유를 위해 온라인 매거진을 발행하고, 공동의 캠페인과 입장 발표를 통해 한중일 3개국 공동의 입장과 활동 펼침.

□ 사업내용

1. 3개국 기후NGO의 활동 내용 공유를 위한 소식지 발간

- 홀수달(6회) 발간하여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3개국의 소식 공유
- 각 국가별로 4~5페이지씩의 내용을 정리하고 3개국어로 번역하여 발간
- 동아시아기후매거진 내용
 - 한중일 3개국의 기후, 에너지 정책
 - 한중일 3개국 NGO의 정책적 대응활동(국내외 활동)
 - 한중일 3개국의 NGO 단체 1곳 소개
 - 기후변화의 현상으로 인한 3개국의 피해, 이슈화되는 내용
- 매거진 발송 대상
 - 한국 : 에너지시민행동, 에너지시민연대, 반핵국민행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등 300여명의 단체 및 활동가
 - 일본 : 일본 기후네트워크 (KIKO) 참여 단체 및 활동가 200여명
 - 중국 : 중국 기후네트워크(CAN) 참여단체 및 활동가 300여명

2. 제 2회 동아시아 기후포럼의 개최

- 2011년의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현재 미정

3. 기후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의 날 및 공동캠페인 전개

- 4월 22일, 지구의날 한중일 공동행동의 날을 설정하여 한중일 3개국의 연대활동으로 진행
- 한국의 환경, 에너지 NGO들이 함께 준비하고 도시별로 진행(현재 서울, 부산, 광주에서 진행)
- 각 국가별 공동행동의 결과를 공유
- 일자 : 2011년 4월 23일(토)

- 장소 : 광주 금남로, 부산 미정, 서울 미정
- 내용 : 이상기후 및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한 공동 액션 진행
 시민, 환경운동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2℃이하로 온도상승을 억제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

4. 한중일 3개국의 기후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

- 2011년 COP17 등 국제회의에 맞춰, 한중일 3개국의 기후정책에 대한 NGO들의 공동 입장을 발표

□ 기대효과

- 한중일 3개국 연대의 틀을 기반으로 하여 아시아 기후연대를 통해 기후정의 수립
- 국제사회에서의 아시아의 기후변화 현실과 입장 표명 등을 통해 공동의 협력 방안을 제시함
- 국내 기후, 환경NGO의 기후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지원과 소통을 이끔.
- 3개국 기후, 환경 NGO간의 연대, 협력 강화

[핵발전 및 핵에너지 확대에 따른 대응활동]

- 핵발전소 후보지 반대 운동
 - 고흥, 해남을 비롯하여 2010년 말, 정부가 선정한 핵발전소 후보지 4곳중 2곳이 전남지역임.
 - 현재 대책위가 구성되어 1인시위, 군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 대책위와 공동 연대활동 전개.
 - 핵발전소 유치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고흥, 해남의 군수와 군의회에 대한 면담의 활동
-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 대응활동
 - 핵발전 중심의 국가전력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인식하고 핵발전산업의 폐기를 위한 활동 전개
 - 기후보호교육과 함께 핵발전의 문제점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시민교육과 강좌 진행
 - 바람직한 국가전력수급계획을 모색하기 위한 전력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대안 모색

영산강 개발사업 대응

□ 사업목적

- 각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4대강사업 저지, 문제 고발 활동 지속
- 4대강사업으로 표출되고 있는 토목개발의 극단적 폐회에 대한 사회 공론화와 저지를 포함한 대안 발굴
- 사업 중단과 회복 및 복원 촉구
- 사회적 합의, 민주적 절차 등 민주주의 회복과 생태적 가치 제고 및 확산

□ 사업개요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참여 단체 등 각계의 연대를 강화하여 시민답사, 현장고발, 토론, 기록 등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을 촉구해 나감
- 친수구역특별법, 농업기반시설 주변 활용 특별법 등 영산강과 저수지 주변 개발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정부, 이에 편승하여 각종 난개발을 추진할 공기업과 지자체 대한 대응 활동.
- 영산강분류 사업 및 저수지 증고 등 토목사업과 함께 부대적으로 난개발 요구와 주장, 선전이 빗발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저지, 대안 활동

□ 사업내용

1.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조직 운영 - 간사단체
 - 일시 : 연중
 - 내용 : 4대강사업 저지활동 위한 각계와 연대 및 조직화. 간사단체로서 각계의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 내고, 연대를 강화함. 4대강사업 대응을 위한 지역민 지역단체 조직화. 각 계와의 협력 구조를 지속해 나감.
2. 영산강 시민답사
 - 일시 : 연중
 - 장소 : 영산강, 섬진강, 지석강 등
 - 내용 : 시민들과 4대강과괴 현장을 목격하고 고발하며, 4대강사업 그리고 이를 강행하는 현 정권에 대한 저항의 의미. 강의 원형 그리고 4대강사업

현장을 찾아 현재 우리사회를 성찰하는 기회 마련.

3. 영산강사업 중단과 복원 대안 제시 활동

- 일시 : 연중
- 장소 : 영산강 일대, 저수지 증고사업 현장
- 내용 : 영산강사업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탁수 문제,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지 침수, 우기때 배수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대한 조사 대책추구 등을 진행함.

또한 조사 및 연구 사업을 통해 영산강사업 문제에 대해 적극 제기하고, 사업 중단과 훼손된 영산강 복원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함. 국내외 사례 수집, 댐의 부작용과 철거방안, 준설 중단과 대안, 하구둑 대책, 저수지 대책, 친수구역 특별법의 문제점 그리고 대책 등을 제시하여 중단과 함께 복원 방향 제시.

4. 영산강사업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

- 일시 : 연중
- 장소 :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 내용 : 1월 18일 1심 판결에 따라 후속활동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중지 신청 활동 등

5. 영산강 도보 답사

- 일시 : 연중
- 장소 : 영산강 본류구간
- 내용 : ① 도보로 전 국간을 답사, 종교계와 함께 진행
② 청소년 대탐사: 영산강네트워크과 함께 추진.

6. 영산강, 지천 지킴이 연대 및 활동 강화

- 일시 : 5~10월
- 장소 : 영산강, 지천 전역
- 내용 : 영산강, 황룡강, 광주천, 풍영정천 등 지천지킴이, 지역민들과 공동의 과제를 설정하고 연대 활동

7. 대안발굴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8월 11월
- 장소 : 광주NGO센터 강당
- 내용 :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한하천학회와 공동으로 4대강사업에 대한 인

문, 과학적 평가 및 대책을 모색하는 세미나 개최

8. 4대강사업저지 활동 보고서 제작

- 일시 : 10월~ 12월

- 내용 : 4대강사업 저지활동 백서 혹은 과거와 현재의 영산강에 대한 기록. 조사 활동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훼손된 영산강 복원과 강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함.

□ 기대효과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환경문제 공론화. 공동체문화,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공감대와 가치 확산

- 4대강사업 저지와 대책 모색

회원 조직화

□ 사업목적

- 환경운동의 대중화 및 대중조직화를 위한 회원확대
- 회원확대를 통한 재정 안정화 및 조직 기본토대 구축
- 각종 회원 대상 프로그램을 통한 조직 활성화 및 역량 확대

□ 사업개요

- 회원확대캠페인을 통한 회원배가 활동
- 회원위원회를 통한 회원사업의 다양화 및 전문화
- 회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회원참여 확대
- 회원모임 활성화를 통한 회원 조직화
- 소식지, 홈페이지, 웹메일, 트위터 등 다양한 매개체를 이용한 회원홍보 확대

□ 사업내용

1. 회원위원회 활성화

- 일시 : 연중
- 내용 : 회원참여를 토대로 한 다양한 회원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회원들의 취향, 의견, 요구 등을 회원 사업에 담아내기 위해 각종 회원사업의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구로 함. 회원위원회 구성원 보충을 통한 위원회 활성화, 월1회 정례회의를 통한 위원회 안정화를 도모.

2. 회원확대캠페인

- 일시 : 6~7월
- 취지 : 2010년 전국적으로 진행된 회원확대캠페인 성과를 토대로 조직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와, 환경운동의 대중화, 시민 조직화를 위한 회원확대캠페인을 실시. 상시적 회원 확대는 물론 기간을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회원확대캠페인을 실시.

3. 회원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1) 회원 만남의 날

- 일시 : 7월29일
- 대상 : 신규회원 및 일반회원
- 내용 : 회원확대캠페인으로 가입한 신규회원 및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회원들간

의 유대와 회원과 사무처간의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알리고 향후 참여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함과 동시에 회원의식을 높이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행사 구성.

2) 회원체육대회

- 일시 : 10월8일
- 대상 : 회원 및 일반인
- 대상 : 회원과 그 가족들을 초대하여 협동심을 기르고 회원들간의 친목 형성 및 회원의식을 높이는 것에 일조할 수 있도록 화목한 내용을 담도록 함.

3) 자연공방 “생활 놀이터”

- 일시 : 연중
- 대상 : 회원 및 일반인
- 내용 :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지키는 작은 행동을 고민하는 모임으로, 재활용 아이디어 작품 만들기, 건강한 친환경 밥상, 천연염색, 천연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창작 활동으로 진행. 일상생활에서 얻은 지혜를 모아 자연보호를 실천하는 활동을 전개함.

4) 생태답사 자연체험 프로그램

- 일시 : 상반기 1회 / 하반기 1회
- 대상 : 회원 및 일반인
- 내용 :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으로, 회원들과 함께 자연의 지혜와 자연의 소중함을 재확인하고 환경운동연합 활동에 더욱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4. 홍보사업

1) 신입회원 홍보사업

- 일시 : 연중
- 내용 : 신규회원에 대한 서비스로, 우편과 메일로 가입에 대한 감사편지 및 단체 리플렛 발송. 향후 환경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분야를 체크하여, 소모임 가입 및 행사참여를 집중적으로 유도

2) 기존회원 대상 홍보사업

- 일시 : 연중
- 내용 : 장기회원에 대한 서비스로 문자 메시지 및 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인사 발송. 환경운동연합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회원임을 환기시키

며 참여(동참) 안내.

3) 회보 ‘맑은삶, 맑은터’ 발행

- 일시 : 격월(1, 3, 5, 7, 9, 11월)
- 내용 : 전국적인 환경이슈와 지역의 현안을 알림과 동시에, 지역조직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내용으로 활동소식, 소모임 소식, 회원 연재기고, 어린이코너 등 회보의 구성과 내용을 편성. 광주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회원에게 알리고 회원과 사무처의 매개체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함.

4) 월간지 ‘함께사는길’ 발송

- 일시 : 매월
- 내용 : 환경운동연합 부설기관 ‘함께사는길’ 에서 매월 발행하는 환경전문지 ‘함께사는길’ 을 구독 신청한 회원에게 발송.

5) 웹 홍보활동

- 웹메일 소식지 “자연지기” 발행
 - 격주로 발행
 -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소식과 계획을 상시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매개체로 활용.
 - 활동소식, 공지사항 외에 읽을거리, 나눌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꼭지 확대. (임원들의 편지글, 회원기고 등)
- 홈페이지 활성화
 -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자료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
 - 회원간 소통, 회원모임 활동 공유 등을 보완하여 회원들의 홈페이지 이용 확대
-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활용
 - 실시간 정보 공유, 쌍방향 소통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활용 확대
 - 트위터, 페이스북 북 등 공식적인 환경운동연합 계정 마련
 - 임위원, 회원들이 함께 관리하는 방안으로 미디어위원회 구성

□ 기대효과

- 회원들의 교육, 모임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회원들의 멤버십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운동 활성화에 기여
- 회원모임과 홍보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일상적 공유와 소통 강화를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 확대

[위원회 운영]

□ 사업목적

- 정관에 의해 규정된 의결, 집행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을 정례화 및 활성화
- 기존 회원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신규 회원들이 관심사에 따른 회원 모임 참여의 기회를 제공
-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회원 모임을 구성 및 정착화

□ 사업개요

- 환경운동연합 정관에 의해 임무가 규정된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회원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기존 회원모임의 활성화 및 신규회원모임을 조직

□ 사업내용

1. 집행위원회

- 당연직, 선임직 집행위원의 매월 정례회의 진행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업의 계획 및 집행을 위한 논의, 의결 활동
- 정기회의 : 매월 셋째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의실
- 내용 : 매월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및 의결, 각종 안건에 대한 논의

2. 자문회의

- 고문, 공동본부장, 감사, 부설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정례회의
- 분기별 정례적으로 운영
- 정기회의 : 분기별로 1회 진행(상하반기 각 1회는 집행위원회회의와 연석하여 진행)
- 내용 : 사업보고 및 자문

3. 지도위원

- 2010년 각계 인사를 중심으로 지도위원 위촉(26명)하여 정례회의 진행됨.
- 2011년 지도위원의 멤버십을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지도역할 강화
- 지도위원 정례회의
 - 5월, 10월 진행(상하반기 각 1회)

4. 회원 모임 운영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 모래톱 내부 역량 강화와 화합
- 광주천 구간별 모니터링 집중 및 자료발간
- 광주천 동,식물, 하천 환경 사진 기록 남기기
- 전문가와 함께 하는 공부 및 놀이프로그램 개발

<물한방울 흙한줌>

- 지난 11년 동안 매월 진행해 왔던 생태문화답사와 함께, 농사를 직접지어 내 손으로 재배한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곳에서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지혜를 느껴보는 농사짓기 진행.

<환경통신원>

-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사례 신고 및 계도 등 환경지킴이 활동.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 소모임 회원대상 환경교육 실시

<녹색감시단>

- 오염원 감시활동 및 환경오염 개선활동
-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지속화
- 녹색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사진모임 “디지로그” >

- 매주 화요일 사진에 대한 이론과 실기 공부 및 회원유대 강화
- 매월 1회이상 정기 출사
- 1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사진전시회

5. 신규 회원 모임 조직 및 운영

- 동네 모임 조직
 - 서구, 북구 지역 마을단위의 회원 모임을 각 1곳 이상 조직
 - 집행위원 및 임위원과 회원, 사무처 실무자 1인이 공동으로 준비팀 구성하여 동네 사업발굴 및 회원 모임 운영
- 여성모임 조직
 - 교육프로그램 및 회원 프로그램 ‘자연공방-생활놀이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참여자들을 조직하여 여성모임으로 발전하도록 함.

■ 문화동아리 조직

- 등산, 음악 등 회원들의 문화적 취향에 따라 다양한 모임을 수시로 기획.

□ 기대효과

- 각종 위원회 조직의 상시적인 평가와 자문을 통해 환경운동의 방향과 사업 내용에 대한 논의 활성화
- 회원 모임의 활성화 및 지역별 모임의 구성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회원간의 소통과 교류를 높임

[후원의 밤]

- 일자 : 11월
- 내용 : 지역 환경보전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활동기금 마련, 환경단체 지원 활성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환경운동 참여 계기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함.

광주천 살리기 운동

□ 사업목적

- 광주천 상류 댐 건설 논란, 지류하천 정화사업 확대, 광주천 수량확보 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관계로 이후 올바른 광주천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정책제안 활동
- 하천지킴이 양성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발굴 및 주민들의 실천활동 유도
- 광주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 이후 생태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올바른 하천복원 방향 제시
- 다양한 하천개발에 대한 대응활동과 대안모색

□ 사업개요

-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이후 생태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을 평가하고 광주천의 문제를 분석, 풀뿌리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하천의 제도개선과 정책제안활동을 펼쳐나감. 또한 하천지킴이 양성활동을 통해 도심하천 살리기에 대한 활동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 사업내용

1. 지속사업

1) 생태모니터링

- 일시: 3월~12월
- 장소: 광주시 도심하천
- 내용:
 - 본류 및 지류를 대상으로 구간별 지속적 생태모니터링
 - 광주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 이후 생태변화 모니터링
 - 광주지역내 소하천 정비사업 모니터링

2) 광주천생태문화학교

- 일시: 6월~9월
- 장소: 광주천지류 및 본류주변학교
- 내용: 지속적인 활동의 일환인 본류 및 지류하천주변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내교육, 생태답사, 하천체험활동, 정화활동 등의 내용으로 생태문화학교를 개최함.

2. 광주천개발 정책에 대한 대응 및 대안 마련 활동

- 올바른 광주천수량 확보 방안 모색
- 하천정화사업의 문제점 제시
- 광주천의 깃대종 세우기를 통한 올바른 복원방향 제시

3. 도심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 일시: 8월~10월
- 장소: 환경연합 소회의실
- 내용: 하천지킴이를 양성하고 발굴하여 도심하천에 대한 활동의 폭을 확대해 나감. 또한 광주천을 비롯한 영산강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단체와 하천지킴이들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연대활동 모색

□ 기대효과

- 생태하천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
- 하천지킴이가 양성 및 발굴 됨.
-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의 현황 및 영향조사를 통해 생태하천복원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
- 소하천에 대한 무분별한 하천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대안 마련

생태도시 만들기

□ 사업목적

-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과정 등에 적극 관여하여 견제와 감시를 통해 친 환경적인 도시-광주를 견인해 나감
- 유해환경 개선 생명안전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함
- 도시 녹지 보전과 더불어, 도시숲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활동 및 시민 참여를 높임.

□ 사업개요

- 광주시 정책과 예산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문화도시에 부합한 정책 과 이에 합당한 예산이 수립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촉구하는 활동
- 도시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대안을 제시하고, 푸른길공원의 주민참여관리 체계를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푸른길기차의 생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함.
- 도시녹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활동, 개발에 대한 감시활동 전개 및 유해 폐기물에 대한 활동을 통해 생태문화도시를 위한 활동 전개.

□ 사업내용

1. '우리지역 정책/예산 평가단' 구성 - 조직구성

- 광주시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평가와 감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은 견제 혹은 바람직한 정책은 견인할 수 있는 실무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구성을 일차 목표로 함.
- 시의원, 행의정감시 전문가를 포함한 인적 구성과 체계적인 활동
- 추경예산을 포함 시 전반 예산과 정책, 특히 도시건설, 교통, 에너지 분야를 적극 검토함.

2. 유해폐기물 적정관리 평가 및 피해 저감 활동

1) 유해폐기물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

- 폐석면 처리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개선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시행에 대한 평가, 검증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시민들이 이에 대한 정보습득이

어려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단계별 활동을 전개함.

- 제도 평가 및 감시와 더불어 유해폐기물에 대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위해 시민교육 및 제도 정비를 위한 활동 전개.
- 언론을 통한 기획 홍보, 온라인 정보제공 등 다양한 홍보를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 홍보활동 전개

2) 인조잔디운동장 현황조사 및 문제 개선 활동

- U대회 개최에 따른 공용운동장 및 학교운동장의 인조 잔디 설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함.
- 광주지역의 인조잔디운동장 현황을 조사하고, 모니터 활동을 통해 관계기관에 개선 촉구

3. 도시숲 가꾸기 및 보전활동 _ 푸른길 가꾸기

: 시민참여 푸른길 관리·운영의 방향과 제도적 장치마련과 전문인력을 양성 함. 푸른길기차의 생태문화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시민참여프로그램 확대하고 남광주푸른길과 도시철도기 2호선 문제에 대응함

1) 시민참여 관리운영 시스템

- 일자 : 2011년 3~12월
- 장소 : 푸른길기차, 푸른길 일원
- 내용 : 푸른길관리 T/F구성(3/10), 시민참여 관리운영 방안 토론회(4/20), Greenway Angel 양성교육(5~6월/ 9~10월), 수목관리 및 모니터링(4~12월)

2) 전국의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 일자 : 2011년 4월 20일~11월 20일
- 장소 : 전국 폐선부지(장항선, 경춘선, 대구선 등)
- 내용 : 전국 폐선부지의 현장답사(4월~8월), 폐선부지의 공원화지원법 제안(12월)

3) 생태문화거점 푸른길기차

- 일자 : 2011년 3월~12월
- 장소 : 푸른길기차
- 내용 : 푸른길세밀화(3~6월), 푸른길 걷기 '워킹홀릭' (4~11월), 푸른길기차 영화관 (3~12월), 여름밤 남광주문화제(8월 20일), 꿈지락공방(4~10월)

4) 남광주푸른길 조성

- 일자 : 연중
- 장소 : 남광주푸른길 및 푸른길공원
- 내용 : 남광주푸른길 조속한 조성촉구, 2호선에 의한 푸른길 훼손 공론화, 2호선 재검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참여

4. 도시 녹지 및 공원의 보전 운동

-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원화 활동 지속.
- 공공기관 이전후 토지 소유와 관련한 내용들로 인해 방치되어 있는 미조성 공공부지(국군통합병원 및 기무부대 부지)에 대한 조성요구 활동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미조성공원(중앙공원 등)에 대한 토지매입 및 난개발 감시활동

5. 친환경 및 채식 급식 확산운동

- 구제역, AI 바이러스 등의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생매장 등의 살처분에 대한 인간 중심의 생명윤리에 대한 반성 필요.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채식급식 등의 확대를 통해 육식 위주의 식문화를 축소하는 활동을 전개함.
- 친환경 급식 및 주 1회 채식급식을 학교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정착시킴.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 조성 기여
- 도심의 녹지공간 확산, 유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속가능한 도시 문화 정착 기여
- 자연과 공생하는 생명윤리 재정립, 생태복지 개념 대중화에 기여

특별사업

2011년 NGO Global 포럼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

□ 사업 목적

- 2011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에 맞춰, NGO포럼의 일환으로 NGO 국제회의를 개최함.
- 국내 및 세계 각국의 도시에 활동하고 있는 NGO들의 포럼을 통해 그들의 활동경험을 공유하면서, 그들 도시와 지구촌이 직면한 환경생태계 과제에 대해 정책적 대안과 행동을 모색해보고자 함.
- 특히 지구촌의 가장 큰 화두인 기후와 에너지 위기, 빈곤의 문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경제위기와 녹색경제의 활성화 등에 대해 도시와 시민의 시각에서 보편적 대안을 공유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일시 : 2011년 10월 14일~16일 (3일간)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에코투어(푸른길, 광주천 등)
- 주관 : 2011 NGO 글로벌포럼 준비위원회(광주환경연합이 실무단체)
- 참가자 : 150여명(연인원 350명)

□ 사업내용

1.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

- 내용 : 지구촌에서 기후변화를 줄이고 온난화를 막기 위해 활동하는 저명인사들을 초대하여, 범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시민들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연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앞서, 기후변화협약의 주요의제와 논란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토론
- 주요 초청자
 - 니모 배시 (지구의벗 국제본부 의장)
 - 빌 맥키번 (미국 350.org 설립자)
 - 데이빗 톤불 (기후행동네트워크 국제본부 사무총장)

- 알라마뎡가 루사마 (투발루 기독교교회 목사)
- 히로세 도시야 (일본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 대표)
- 리리 (중국 환우과학기술연구센터 대표)

2. 기후변화와 도시숲, 녹지

- 내용 : 도시를 보다 생태적으로 만들며, 기후 변화와 도심 열섬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숲을 만들고 있는 세계의 사례를 공유함.
- 주요 초청자
 -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컨서번시 대표
 - 스위스 프로나투라 대표
 - 일본 사토야마 보전 단체 대표
 - 홍콩 습지공원 대표

3.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도시

- 내용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취약한 도시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생태적으로 디자인하고 재창조하는 세계 각지의 사례를 공유하고 진정한 생태도시를 위한한 비전을 만듦.
- 주요 초청자
 - 리처드 레지스터 (미국 에코시티빌더 대표)
 - 테드 플래니건 (미국 에너지모션 대표)
 - 일본 지구온난화를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 ‘에도가와’ 대표
 - 중국 자연지우

□ 기대효과

-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활동에 대한 소개를 통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
- 기후보호를 위한 광주의 활동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국제적 연대의 기반 마련
- 국내 환경NGO 활동가들과 함께 기후보호를 위한 연대활동의 방안 수립함으로써 환경NGO활동의 활성화 촉진

2011년 예산안

2011년 예산(안)

※단위 : 원

수 입 부		지 출 부			
전년도 이월금	8,616,202		전화통신비, 관리비	7,560,000	
회 비	어린이회원	2,400,000	경 상 비	소모품 및 수선비	3,000,000
	청소년회원	1,800,000		비품구입비	2,000,000
	일반회원	126,000,000		후생복지	15,580,000
	가족회원	18,000,000		보험료	6,500,000
	단체회원	6,000,000		인건비	114,231,000
	후원회원	6,000,000		계	148,871,000
	평생회원	3,000,000		사 업 비	환경교육
	특별(임원)	5,400,000	기후보호운동		15,000,000
	계	168,600,000	영산강 개발사업 대응		5,000,000
	후 원 금	회보광고	2,000,000		연속사업
후원의밤 등 기부금		40,000,000	정기간행물(회보,잡지)		18,240,000
계		42,000,000	홍보물제작, 우편, 수수료		10,800,000
사 업 비	민간 협력사업	15,000,000	회원만남 행사		6,000,000
	교육참가비	15,000,000	회원모임 지원		2,100,000
	특별사업	100,000,000	홈페이지, 자료실 운영		1,200,000
	계	130,000,000	정기총회 및 회의		4,000,000
기 타	자료대여, 판매 등	783,698	후원의밤	5,000,000	
	계	783,698	특별사업	100,000,000	
			중양/지역 연대	6,000,000	
			계	198,340,000	
			기 타	예비비	2,789,000
				계	2,789,000
총 계		350,000,000	총 계		350,000,000

2010 결산 대비 2011 예산안 비교

수 입 부			지 출 부				
항 목	2010결산	2011예산안	항 목	2010결산	2011예산안		
이월금	6,654,672	8,616,202	차기 이월금	8,616,202			
회비	자동이체	142,632,000	경상비	통신,관리비	6,576,690	7,560,000	
	지로납부			소모품,수선	2,288,960	3,000,000	
	직접납부			비품구입	733,000	2,000,000	
	평생회원	2,000,000		후생복지	12,613,280	15,580,000	
	특별(임원)	3,620,000		보험료	5,700,560	6,500,000	
	소계	148,252,000		168,600,000	인건비	103,018,120	114,231,000
					소계	131,050,610	148,871,000
후원금	회보광고	2,000,000	2,000,000	사업비	중점사업		35,000,000
	후원·기부금	32,613,265	40,000,000		연속사업	21,278,045	10,000,000
	소계	34,613,265	42,000,000		회원사업	33,319,210	38,340,000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12,000,000	15,000,000		조직사업	11,520,330	15,000,000
	교육참가비	4,626,000	15,000,000	특별사업	100,000,000		
	특별사업	0	100,000,000	소계	66,117,585	198,340,000	
	소계	16,626,000	130,000,000				
기타	자료판매	40,000	783,798	기타	차입금상환	10,409,320	0
	기타수익	0			기타/예비비	0	2,789,000
	이자 수익	7,780			소계	10,409,320	2,789,000
	차입금	10,000,000	0				
	소계	10,047,780	783,798				
총계	209,539,045	341,383,798	계	207,577,515	350,000,000		
총계	216,193,717	350,000,000	총계	216,193,717	350,000,000		

예산 세부(안)

■ 예상수입(안)

※단위 : 원(1,000원이하 절사)

관	항 목	금 액	내 역
	전년도 이월금	8,616,202	
회 비	어린이회원	2,400,000	2,000×100인×12개월
	청소년회원	1,800,000	3,000×50인×12개월
	일반회원	42,000,000	5,000×700인×12개월
		84,000,000	10,000×700인×12개월
	가족회원	18,000,000	20,000×75인×12개월
	단체·기업회원	12,000,000	50,000×20곳×12개월
	평생회원	3,000,000	1,000,000×3인
	특별(임원)	5,400,000	30,000×15인×12개월
	소 계	168,600,000	
후 원 금	회보광고	2,000,000	330,000×6회
	후원·기부금	40,000,000	연중
	소 계	42,000,000	
사 업 비	민간협력사업	15,000,000	5,000,000×3개
	교육참가비	15,000,000	1,500,000×10회
	특별사업	100,000,000	100,000,000×1개
	소 계	130,000,000	
기타	자료판매	783,798	연중
	소 계	783,798	
수입총액		350,000,000	

■ 예상지출(안) I

※단위 : 원(1,000원이하 절사)

관	항	목	금 액	내 역	
경 상 비	사무실 운영비	통신, 관리	전화, 통신비	3,360,000	280,000×12월
			건물관리비	4,200,000	350,000×12월
		소모품 및 수선비	3,000,000	250,000×12월	
		비품구입비	2,000,000	PC 구입:1,000,000×2대	
		후생복지	중식6,720,000 퇴직8,860,000 계15,580,000	중식4,000×7인×20일×12월 퇴직적립금 : 기본급 10%	
			4대보험	6,500,000	
		운영비 계		34,640,000	
		인건비	기본급	공동의장	22,662,000
	사무처장			21,540,000	1,795,000×12월×1인
	국장			20,176,000	1,231,670×3월×1인=3,695,000 1,373,450×12월×1=16,481,400
	팀장			16,436,000	1,369,725×12월×1인
	간사			1,075,820×12월×1=12,909,800	
				942,108×12월×1인=11,305,290	
	소계		105,029,000		
	상여금		사무처 7인	9,202,000	기본급 50%×2회(명절)
	인건비 계		114,231,000		
	※국장 1인 4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 이후 12월까지 육아휴직 ※2009년 인건비: 전 활동가 100만, 80만으로 동결해 고통분담 ※2010년 인건비: 직책수당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 ※2011년 인건비 직책수당 제외한 기본급만. (직책수당 1년 총액 15,600,000 / 상여금 2회 총액 9,202,000)				
	경상비 합계			148,871,000	

■ 예상지출(안) II

※단위 : 원(1,000원이하 절사)

관	항	목	금 액	내 역
사	중점 · 연속	환경교육	15,000,000	1,500,000×10회
		기후보호운동	15,000,000	연중
	사 업	영산강 개발사업 대응	5,000,000	특별계정에서 연대활동 별도
		연속사업	10,000,000	생태도시 만들기, 광주천살리기 등
			소 계	45,000,000
업	회 원 사 업	정기간행 (회보, 함께사는길)	14,040,000	(함·길) 1,800×650부×12월
		홍보물 제작, 우편료	4,200,000	(회보) 700,000×6회
		홍보물 제작, 우편료	10,800,000	900,000×12월
		회원만남 행사	6,000,000	2,000,000×3회
		회원모임 지원	2,100,000	300,000×7개
		홈페이지,자료실 운영	1,200,000	100,000×12월
				소 계
비	조 직 및 특 별 사 업	정기총회 및 회의	4,000,000	정기총회 등 회의
		후원의밤	5,000,000	1회
		NGO 글로벌포럼	100,000,000	1회
		중앙/지역 연대	6,000,000	500,000×12월
				소 계
		사업비 합계	198,340,000	
기타	예비비		2,789,000	
	소 계		2,789,000	
(사업비+기타) 계			201,129,000	
지출총액(경상비+사업비)			350,000,000	

정관 개정안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관 개정(안)

전 문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광주환경공해연구회”는 89년 3월 17일 이 땅에서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공해, 그리고 핵을 추방하여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창립되었다. 또한 92년 2월 29일 “광주환경공해연구회”의 활동을 발전적으로 마감하고 높아가는 시민들의 공해추방과 환경보전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의 환경운동의 새로운 구심체로서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을 창립하였다.

‘93년 4월 29일 그 동안 환경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건설과 우리나라 민간환경운동의 전국조직 창립에 발맞춰 구조적으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파괴로부터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제3기의 민간환경운동으로 “광주환경운동연합(2000년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에서 명칭 변경)”을 창립하였다.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약칭 “광주환경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FEM GwangJu”라 한다.

제 2조(목적)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모든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광주와 이 세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실) 본 연합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 4조(사업) 본 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환경문제, 환경운동을 위한 조사연구
2. 환경문제의 대안정책 개발 및 제시
3. 환경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4.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
5. 환경오염 피해 주민의 지원·지지

6. 국내외 환경관련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연대
7. 기타 본 연합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자격)

1. 본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자격구분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조(의무)

1. 회원은 본 연합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 금액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조(권리)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본 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본 연합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제 8조(상벌)

1. 본 연합의 발전과 환경운동에 큰 기여를 한 회원, 시민 및 단체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장 총회

제 9조(회의)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의결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0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60일 한도 내에서 정기총회의 개최일을 변경

- 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시 의장은 총회에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개정전	개정후
제 11조(의결) 총회는 전년도 12월말 현재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하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위임을 통보한 회원은 출석회원으로 간주한다.	제 11조 (성원) 총회는 전년도 12월말 현재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위임을 통보한 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12조(의결) 총회 의결은 참석한 회원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하며, 위임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 12조(임무)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 제정 및 개정 2.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3.임원 및 감사 선출 4.고문 추대 및 지도위원 위촉 5.집행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6.기타 중요사항의 의결	제 13조(임무)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 제정 및 개정 2.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3.공동의장 및 감사 선출 4.고문 추대 및 지도위원 위촉 5.집행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6.기타 중요사항의 의결
제 4장 조 직 제 13조(임원) 본 연합 임원은 공동의장과 감사, 집행위원, 사무처장으로 한다. ① 공동의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 4장 조 직 제 14조(임원) 본 연합 임원은 공동의장과 감사, 집행위원, 사무처장으로 한다. ① 공동의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단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여야 한다.

<p>② 감사는 2인으로 하고 본 연합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p> <p>③ 집행위원회는 상설 의결 및 집행기구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p> <p>④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총괄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p>	<p>② 감사는 2인으로 하고 본 연합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p> <p>③ 집행위원회는 상설 의결 및 집행기구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p> <p>④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총괄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p>
<p>- 이하 전문 내용동일, 각 조의 연번만 변경함. (14조~30조)</p>	

제 14조(임기)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5조(자문회의) 본 연합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본 연합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① 자문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하며 고문, 감사, 공동의장, 환경교육원장, 부설 연구소 이사장 및 소장과 상임의장이 지명한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문회의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6조(고문) 본 연합은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상임고문을 둔다.

제 17조(지도위원) 본 연합은 본 연합을 지도할 수 있는 각계 지도급 인사를 지도위원으로 둔다.

제 18조(후원회) 본 연합은 본 연합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9조(환경상담실) 환경문제와 공해피해를 상담하고 환경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환경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0조(자료정보실) 환경관련 자료의 보급과 정보화를 위해 자료정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1조(환경교육원)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해 나가기 위해 환경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2조(부설기관) 본 연합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3조(상설위원회) 본 연합은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 인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사업위원회, 회원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집행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4조(특별위원회) 본 연합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집행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5조(지역조직 및 회원모임)

1. 본 연합은 지역조직과 각 부문에 회원모임을 둘 수 있다.
2. 지역조직 및 회원모임은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6조(사무처)

1. 본 연합은 총회 및 집행위원회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 5장 재정

제 27조(재정) 본 연합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재정위원회의 사업수익금, 후원회의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28조(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29조(예산 및 결산) 사무처장은 사업 및 예결산안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보 칙

제30조(정치활동 제한) 본 연합의 임원과 부설기관의 장 등 주요 직책을 갖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

제 1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개정) 정관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200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총회에서 결의한다.

제 3조(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규정 및 준칙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1993년 4월 29일 제정
1996년 2월 8일 1차 개정
1997년 1월 21일 2차 개정
1999년 1월 26일 3차 개정
2000년 1월 21일 4차 개정
2001년 12월 27일 5차 개정
2004년 1월 13일 6차 개정
2007년 1월 25일 7차 개정
2009년 1월 20일 8차 개정
광주환경운동연합

[부록]

- 회원 생활수칙
- 성명서 논평 발체
- 언론보도로 보는 우리의 활동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생활 수칙

1. 자연을 사랑한다
2. 검소하게 생활한다
3. 1회용품을 안쓴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5. 물을 아껴쓴다
6. 우리농산물을 애용한다
7. 쓰레기를 줄인다
8. 에너지를 절약한다
9. 남김없이 먹는다
10. 나부터 실천한다

성명서 논평 발췌

선언문

MB정권 영산강사업,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하며!

○ MB정권 4대강사업으로 국민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영산강, 한강, 낙동강, 금강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MB정권 4대강살리기 사업은 국민 70%가 반대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뜻과는 반대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작년말 4대강사업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공사가 강행중입니다.

MB정권 강살리기사업은 흐르는 강물을 인위적으로 막는 강죽이기이며 이름만 바뀐 운하사업입니다. 영산강살리기사업 역시 운하사업입니다. 승촌호(승촌보), 죽산호(죽산보), 영산호(하구둑)로 강을 인공호수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제2, 제3의 하구둑을 영산강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영산강과 영산강유역의 역사문화, 지역민의 삶을 파괴하는 사업을 뱃길복원, 강살리기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허황된 이미지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강살리기, 뱃길복원 운운하면서 강을 위락도구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 타당성 검토 등 객관적 검증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 한반도운하와 다름없는 4대강사업은 반드시 중단되고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강이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돼 국가경제가 파탄 나서도 안 됩니다. 역사문화유산이 사라지게 해서 안 됩니다.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사라지게 해서도, 농민을 비롯한 지역민이 원통한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됩니다.

지금껏 영산강을 살리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과 실마리를 일거에 무력화 시키고 영산강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는 영산강사업을 비롯한 4대강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 대국민서명운동을 통해 국토파괴, 국고파탄 재앙을 막기 위한 국민의 의지를 모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서명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생명의 강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를 보전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1차 목표로 전국의 연대 단체와 함께 3백만의 서명을 받을 것이며, 5백만, 천만 명의 서명을 받을 때까지 거리와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범국민 서명운동이 이명박 정부에게, 한반도운하 반대에서부터 현재 4대강사업 반대에 이르기 까지 생명의 강을 지키고자 하는 민심의 진의를 파악할 마지막 기회이길 기원합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 4대강 사업 전면재검토 국민서명운동 발대식 참여자 일동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 국민서명운동 광주전남본부)

성명서

박준영전남지사는 MB 4대강죽이기사업 추진 공로자! 박준영 현 지사를 전남지사후보로 확정된 민주당을 규탄한다!

○ 민주당은 4월 12일, 2010년 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로 박준영 현 지사를 확정하여 발표했다.

○ MB정권의 4대강사업의 한 축인 영산강사업을 적극 옹호하고 지지했던 박준영지사를 차기 전남지사 민주당 후보로 선정한것은 4대강죽이기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대다수 지역민과 국민의 뜻을 배반한 것이다. 더욱이 종교계와 양심있는 학자들이 4대강사업은 위험천만한 망국사업으로 규정하고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반대가 당론이라는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

○ 박준영지사는 MB정권이 집권초기에 한반도대운하를 주장할 때 영산강뱃길복원 즉 영산강운하를 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친 인물이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밀려 정부가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중단한 이후에도 박준영지사는 영산강뱃길과 운하는 내용적으로 강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자는 점에서 같으며 운하추진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작년 11월 22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영산강사업 착공식에서 박준영지사는 낮뜨거운 MB찬양을 하기까지 이른다.

○ 박준영지사는 영산강사업이 낙동강, 한강사업과는 달리 마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영산강사업 역시 타당성이 결여된 하천파괴사업이다. 영산강사업은 2개의 보를 만들고 대규모 준설공사를 통해서 5~6m이상의 수심을 광주에서부터 목포까지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영산강사업을 '운하가 아닌 뱃길복원이다' 라며 마치 뱃길복원이 운하와 다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이 MB운하와 100%일치한다. 뱃길복원이 지역경제와 영산강을 살린다는 주장은 MB가 운하건설을 주장할 때의 논리와 똑같다. 이것이 4대강 사업의 실체이다.

○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마치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을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으나, 보를 만들고 대규모 준설을 하여 실효성 없는 뱃길을 만드는 것은 대다수 지역민이 반대하고 있다.

○ 우리는 운하건설이 소신이라는 이명박대통령의 4대강사업으로부터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광주전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영산강사업을 바로잡지 못하면 4대강사업을 막아 낼 수 없다고 판단한다.

○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지도부에게 MB 4대강죽이기사업을 옹호하고 찬동한 박준영전남지사, 최인기국회의원 등을 민주당차원에서 징계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단 한번도 책임있는 응답을 한적이 없었다는 것과 급기야 박준영 현지사를 전남지사 후보로 까지 결정한 것을 규탄하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는 민주당에 요구한다.

- 민주당은 4대강죽이기사업 찬동자인 박준영지사를 전남지사 후보로 선정한 것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박준영지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

-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모든 4대강사업 찬동인사에 대한 공천권을 박탈하고,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4대강유역권에서의 구체적 실천 공약을 제시하라!

2010. 4. 13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결의문

영산강 도보순례를 마치며
강은 생명이다,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영산강을 썩은강, 죽은강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영산강사업(4대강사업)을 서둘러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썩게 하고 누가 죽게 했습니까?

개발만능시대를 겪어 오면서 인간들이 토해내는 온갖 편의와 이기의 오물 받아있던 영산강은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생명에 대한 배려가 열악했던 상황에도 영산강은 생명을 키워내 우리 사람들을 살게 하고 풍요와 휴식을 선물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힌 하구둑 때문에 흐르지 않는 영산강의 영산호는 생명으로 지켜지지 못하고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젓줄 영산강을 치유하고 강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을 위락장, 돈 벌이 놀이터로 만들겠다고요? 이것이 살리기라니요?

수상, 수변 레저 활동을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보를 만들고 강바닥을 수미터 파내서 영산강 전역을 인공호수화 하겠다는 이 사업에 생명, 평화는 이미 없습니다.

강은 생명임을 호소하는 성직자들의 성스럽고 절박한 순례마저 모독하는 4대강사업에 정당성과 정의는 이미 없습니다. 영산강순례단에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경고를 하고 죄인 증거물 수집하듯 사진기를 들이대는 등 4대강사업을 위한 권력의 횡포에 울분을 넘어서 작금의 현실이 침통하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생명을 품고 키워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영산강은 권력자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 임기를 기준으로 개조될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생명을 다루는 사업을 검토과정도 준비과정도 평가과정도 없이 속도전이라니, 평화로운 우리의 미래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공포감을 갖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산강을 걸어 목도한 확신을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 영산강을 부디 흐르게 하여 강으로 살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섬 없는 각오로 정부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강은. 생.명.입.니.다!

2010년 5월 29일 / 영산강 순례단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기자회견문

[6.2지방선거로 심판 받은 MB 4대강사업 중단 촉구 입장발표 기자회견문] 민심은 4대강사업 반대! 영산강사업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6.2지방선거에서 재차 표명된 4대강사업 반대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 이명박정권이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민심을 거슬러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준엄했다.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참패의 원인을 4대강사업을 강행한 현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는 국토파괴 세금과탄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민의 일관된 요구의 연장선이며, 국민에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인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권력을 동원해 4대강사업 비판에 대한 일체의 민간활동을 제약했지만 국민들은 표로 비정상적인 4대강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표명한 것이다.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 역시 수질개선이나 지역살리기가 아니라 타당성이 결여된 세금과탄, 국토파괴형 토건 개발사업일 뿐이다.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주민 동의나 합의 과정도 전무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수상,수변 레저 활동 등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강바닥을 수미터 파내고 물길을 가로 막는 사업을 강행하면서, 강을 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온갖 허구로 치장해 왔다. 홍수와 물 문제는 영산강 본류가 아닌 지천과 산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산강 강바닥을 들어내고 보를 만들어야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의 방침대로 홍보와 선전으로 허구가 가려지지 않고 비판의 소리를 막아도 국민은 진실을 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드려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4대강 공사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정권에 대한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0년 6월 8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성명서

MB 4대강사업의 전도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규탄 성명

박준영 전남도지사 당선자의 사퇴를 권고한다.

민주당은 박준영지사를 출당조치 하라!

6.2 지방선거 결과, 전 국민의 여론은 현 정부의 4대강사업의 중단이다. 민주당 등 야당 단체장 후보들은 ‘MB 4대강사업의 중단’ 을 공약했고 당당히 당선되었다. 4대강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 경남, 충북, 충남, 대전, 그리고 광주, 광역 당선자들은 당당하게 4대강 사업의 중단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전남도 박준영 지사 당선자는 예외이다. 그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산강사업을 필요한 사업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는 ‘MB 4대강사업의 영원한 전도사’ 로 전략한 민주당 소속의 박준영 전남도지사 당선자의 반민주적, 반환경적, 반역사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준영 당선자는 MB 정부 등장 이후, 도지사로서 현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를 추진할 때도 ‘영산강운하, 혹은 영산강뱃길’ 을 주창했었고, ‘기아자동차의 물류를 영산강 뱃길을 통해 수출’ 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며, 현 정부가 ‘한반도대운하’ 를 ‘4대강사업’ 으로 이름 세탁을 한 이후에도 그는 MB의 시대착오적이며 반생태적 사업을 찬동해왔다. 급기야 70%가 넘는 국민들의 반대와 그가 속한 민주당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이기로 4대강사업을 착공할 때, 그는 ‘MB 4대강 어천가’ 를 노래했었다.

이에 우리는 수 차례에 걸쳐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그가 소속한 민주당에 ‘박준영 지사의 출당조치와 당 공천과정에서 배제’ 를 요구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 공천이 되었고, ‘공천이 곧 당선’ 인 지역정서에 따라 당선되었다. 우리는 민주당의 당론이 확고하게 4대강사업의 반대에 있기 때문에 선거과정이나 그 이후 그가 당론에 따른 행동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기대일 뿐, 그는 전 국민적인 4대강반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MB의 4대강 대변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전남도 행정을 총괄하는 도지사로서 MB정부 이후 최대 이슈인 ‘한반도 대운하’ 혹은 ‘4대강사업’ 에 대해 지역의 전문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단 한 번도 수렴한 적이 없이 반민주적 행정을 펼쳐왔다. 더불어 MB정부와 한나라당의 가장 충직한 ‘4대강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당당하게 지역 주민들의 대표인 박준영 지사가 ‘4대강사업’ 의 지지하고 있고, 영산강사업에 그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받들어, 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계 그리고 정치권 등과 협력해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사업의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남도 박준영 당선자의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국민적 여론에 반하는 4대강사업의 적극적 옹호자이자 ‘MB 4대강 영원한 전도사’ 박준영 전남도 당선자의 사퇴를 권고한다. 비록 ‘민주당 공천이면 당선’ 이라는 등식으로 당선되었지만, ‘민주주의와 정의’ 의 고장인 전남도의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둘째, 우리는 상습적으로 민주당의 4대강사업 반대의 당론을 위반한 전남도 박준영 당선

자에 대해 민주당이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박준영 당선자와 똑같은 4대강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인 최인기(나주 회순출신), 이낙연(함평 영광출신)의원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한다.

셋째, 우리는 MB정부의 ‘한반도대운하’ , 이름을 세탁한 ‘4대강사업’ 의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박준영 전남도지사 당선자와 최인기, 이낙연 의원 등의 ‘MB 4대강 옹호 활동’ 에 대해서도 시도민과 함께 엄중하게 심판해 나갈 것이다.

2010. 6. 8 /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시민행동

결의문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사퇴촉구 결의문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현 정부 최대의 반민주적 사업이자, 국토환경 생태계를 파괴하는 ‘MB 영산강사업, 4대강사업’ 을 경향각지 각계각층의 치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습니다. 또한 그는 범국민적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사업반대운동을 ‘정치투쟁’ 으로 폄하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4대강사업 반대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뜻을 ‘MB의 영산강사업이 지역민의 숙원사업’ 이라며 자의적으로 왜곡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시민행동’ 은 박준영 지사의 4대강 정치행보가 한국 민주주의 뿌리를 지켜온 광주전남지역의 과거를 부정하고, 지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외면한 처사로 규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사업이 환경과 생태계, 뭇 생명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앞장서 동참해 온 박준영 지사의 4대강 정치행보를 규탄합니다.

이에 우리는 MB와 박준영의 영산강사업으로 죽어가는 영산강을 살리고 또한 4대강을 살리는 길은 민선5기 전남도지사로 취임하는 박준영지사가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며 도지사직의 사퇴를 촉구하고 이를 결의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수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 6월 30일 /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질의서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 영산강 방문에 따른 질의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지지를 표합니다.

민주당이 '4대강사업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공식 활동을 적극 펼쳐가고 있는 것은, 4대강사업 중단이라는 거대한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과 4대강사업을 우려하고 있는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망국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현 정권의 4대강사업을 반드시 중단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이라는 로드맵대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현 정권에 대한 거대한 저항이 바로 지난 6.2지방선거에서도 표출되었습니다.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을 반대하는 광주전남 지역의 정서와 민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영산강 현장조사를 위해 광주전남을 방문해주신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성공하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현 정부의 영산강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4대강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산강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의 민주당 일각에서는 찬성하는 듯한 자세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영산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주당이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을 반대한다면 이 사업을 찬성해온 민주당 소속의 박준영 전남지사와 최인기 국회의원(나주, 화순)을 즉각 출당조치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박준영 지사와 최인기 의원은 MB 한반도대운하시절부터, 이름 세탁을 한 4대강정비사업 그리고 오늘의 4대강사업에 대해 영산강운하 혹은 뱃길복원으로 주장하며 찬성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 당론을 일관되고 부정해 왔고, 현 정권 최대의 반민주적 사업인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을 찬양해온 민주당의 두 정치인인 박지사와 최의원을 출당 조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3.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사업 반대라는 민주당 당론을 위배하고 있는 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에 대한 합당한 징계 조치를 요구합니다. 나주시장 영암군수 무안군수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영산강사업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부 정치인들은 민

주당의 당론을 위배하고 지역의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외면하며 반민주적 영산강사업, 4대강사업을 강행하는 MB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4. 민주당은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의 중단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는 민간단체 종교계 학계 등과 4대강사업을 걱정하는 시도민, 국민들에게 일부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당론을 위배하고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을 찬성하는 정치행보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앙당의 확고부동한 반대지에도 MB4대강어천가를 부르는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로 인해 특히 광주전남지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큼니다. 반드시 이런 일에 대해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5. 민주당 광주시지부 및 전남도지부가 영산강 사업, 4대강사업의 중단을 위해서 광주전남지역의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주민조직 등과 영산강 및 4대강중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중앙당차원에서 4대강사업 중단과 대안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과 연대 대응하고 있듯이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지역차원에서 연대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사업 중지를 위한 국민소송이 진행 중인 바, 민주당이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도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영산강사업, 4대강사업은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역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학자 그리고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법적 대응을 진행시켜가고 이 국민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7. 조속한 시일 내(7, 14이내)에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정세균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님과 면담이 성사되도록 해주십시오. 정세균 당대표께 MB의 영산강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망국적 4대강사업은 중단시키고 진정한 강살리기,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민주당의 견해와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 7월 8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성명서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을 중단하고 1호선 평가와 지방 재정 문제부터 검토하라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2호선 강행은 지방재정을 파탄내고 도시 흉물로

방치되는 시설로 전락할 수도

최근 성남시가 채무지급유예를 선언하면서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지자체의 재정 문제는 조세 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해당 지자체가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추진했던 사업들도 커다란 몫을 차지하였다.

그 중에서 도시철도 사업은 지방재정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친 사업이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도시철도 부채와 운영 적자로 지방 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광주경실련, 참여자치 21, 광주환경연합 3개 단체는 광주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1호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지방재정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 반대측의 입장을 철저히 배제하였다. 또한 인구 예측과 운영 적자 문제 등 사업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객관적 사실 관계를 왜곡하며 시민사회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도 시민 여론을 호도하였다. 최근 광주시장 인수위 관련 보고에서도 도시철도건설본부는 500억대에 이르는 1호선 운영 적자를 337억으로 보고하고 1, 2호선 수송 인원을 40만 명으로 예측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검증된 바와 같이 광주지하철 1호선은 6천 3백억이 넘는 건설 부채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커다란 고통을 주었고 아직도 764억이라는 부채가 남아있는 상태다. 또한 매년 500억대에 이르는 운영적자는 두고두고 광주시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도 광주지하철 1호선은 매년 660억이 넘는 비용에 비해 운수 수입은 87억에 불과해 비용의 13% 정도 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강운태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중요 정책 결정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 고려도 없이 왜곡된 정보를 통해 결정된 사업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포기한 무책임한 행태다.

내년 광주시 재정 부족분이 무려 2,1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으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은 무리

한 투자 사업은 광주시 파산을 부추길 수 있다. 더구나 도시철도 2호선은 지상 고가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경관 문제를 야기하고 건설 이후 도심지 재생과 개발 과정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을 강행하기 위한 왜곡된 정보와 편파적 결정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도심지의 승용차의 사용을 억제하고 버스, 자전거를 이용한 대중교통망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경찰서, 참여자치 21, 광주환경연합 3개 단체는 광주시가 도시의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2호선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 위한 노력부터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7월 15일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 21

주민 요구서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 주민요구서

중앙공원은 1975년 지정된 이후, 5%이하의 낮은 조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92년 수립된 중앙공원 조성 계획은 과도한 시설물 위주로 계획되어 있어 주변공간의 변화와 시민들의 이용패턴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5년 특급호텔건립반대, 2009년 유스호스텔건립반대운동 등을 통해 지역민들은 시설물 위주의 과도한 개발을 반대해 왔습니다.

지난해 광주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중앙공원을 대상지로 한 유스호스텔 등의 시설물 건립을 위한 계획임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은 유스호스텔건립을 반대하며, 중앙공원 기본계획 재수립과 광주시의 책임있는 조성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시절 “중앙공원조성계획을 검토하여 재수립에 대한 노력과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를 대표하는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원조성계획의정비)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의한 주민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는 법적 규정에 따라 중앙공원유스호스텔건립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중앙공원 주변 주민의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 요구’ 서명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2,460명의 뜻을 모아, 광주시에 중앙공원 조성계획의 재수립을 요구합니다.

1. 광주를 대표하는 도시숲으로써 중앙공원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현대에는 생태도시의 관점에서 도시대표공원의 기능과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녹지공간으로서의 중앙공원의 미래에 주목하여, 도시가치와 삶의 질을 높이고 광주도 뉴욕 센트럴파크, 런던 하이드파크와 같은 세계적인 녹지공간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2. 중앙공원 조성계획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 재수립되어야 합니다.

- 생태적 특성을 무시하고, 시민의 참여가 배제된 채 18년전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폐기하고, 장기적·생태적·시민적 비전을 가진 새로운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과정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전문가, NGO, 행정이 중앙공원의 재계획과 광주에서의 중앙공원의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조성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합니다.

3. 토지매입을 위해 광주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중앙공원은 전체 면적 2,939,337㎡ 중 70%에 이르는 사유지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조치와 함께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광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시적 매입보다는 단계적 토지매입을 위한 행정의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예산 배정을 통해 사유지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4.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단계별 조성계획 수립하여야 합니다.

중앙공원의 조성계획을 재수립하고, 사유지에 대한 단계적 매입을 통해 중앙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중앙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시설물과 건축물은 공원의 조성비를 증가시키는 이유입니다. 현재 중앙공원의 지형과 생태적 자원을 활용한 조성계획 재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중앙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IV. 맺으며

중앙공원은 서구의 공원이 아닌 광주 도심의 생태적 허파이고, 녹지의 중심축으로 보전되어야 할 광주의 대표적 녹지공간이며, 도시의 생태축입니다.

국내 여러 도시들은 도시에 대형공원을 생태적으로 조성하여 도시의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숲, 울산대공원, 부산100만평공원이, 국외에서는 뉴욕 센트럴파크, 런던 하이드파크 등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조성공원으로 남겨져 있는 89만평이라는 거대한 중앙공원은 광주의 도시 브랜드와 가치를 살려줄 소중한 공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중앙공원의 잠재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과거 시설물위주로 된 중앙공원조성계획을 폐기하고, 시민의 요구와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롭게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공원이 안고 있는 조성계획과 사유지 문제들을 광주시행정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중앙공원은 광주를 대표하는 도시숲으로, 광주는 국제도시로써 면모를 갖춘 도시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0.7 / 중앙공원유스호스텔건립반대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광주호독높임사업 반대, 4대강사업반대

“시와 가사 문학의 산실을 광주호 독높임사업으로 수몰시키지 마라”

MB 4대강사업 중 하나인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은 전국에 96곳의 저수지의 독을 높이고 이를 통해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표한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서는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 수계 14곳, 섬진강 수계 9곳의 댐과 저수지의 독높이를 1.5m에서 14m까지 높여, 8,000만 m^3 의 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영산강의 수량확보를 위해 영산강 본류와 승촌보와 죽산보를 만들어 승촌호, 죽산호를 만드는 것도 부족하여, 영산강 수계의 광주댐을 비롯하여, 장성댐과 나주댐, 왕동저수지 등을 높여 7,000만 m^3 의 물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한다.

광주댐 저수지 증고사업은 현재 보다 2.6m 독을 높여, 현재 총 저수량 20,890 m^3 에서 26,530 m^3 로 약 25%의 추가 저수하여, 광주호의 평균 수심 2.57m가 증가하게 된다.

시와 가사문학의 산실로, 전국 각지에서 탐방객이 줄을 잇는 광주호 일대인 이곳은 광주호 독높임사업으로 인해 도로, 농경지와 함께 호수생태원도 함께 수몰된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는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의 독을 높인다고 하나 광주호 일대는 가뭄과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아니다. 본 사업은 영산강 상시 수심을 5m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리하여 영산강에 배를 띄우고, 영산강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산강유역의 댐과 저수지에 물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의도인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주호에 새롭게 취수탑을 설치하고, 현재 독을 높여 추가로 확보하는 564만 m^3 의 용수보다 더 많은 820만 m^3 의 용수를 영산강에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광

주호의 물이 부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것이며, 정부가 독높임사업의 목적으로 밝히는 가뭄대비가 아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시가문화권, 가사문화권으로써 중요한 이곳은 지난 76년 광주댐 건설로 인해, 자미탄, 노자암, 석병풍과 학선리 마을이 수몰된 바 있다. 광주댐 건설로 인해 역사문화 환경은 파괴되고 그 본연의 모습을 문헌을 통해서만이 유추할 수밖에 없다. 광주댐 건설 40여년이 지난 지금, 시가문화권 일대가 훼손될 위기에 직면해있다.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으로 인해 역사문화 환경은 파괴되고, 현재 남겨진 많은 시와 가사에서의 풍경과 무등산의 문화 유적들도 함께 수몰 될 것이다.

그동안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에서 수립한 96개소 중 44개소(46%)가 계획 변경을 했을 정도로 계획 당시부터 줄속 추진되고 있으며, 광주댐 바로 인근의 창평면 외동저수지는 지난해 6월 마스터플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독높임사업으로 포함되는 등 타당성이 불분명한 사업들이 합당한 검증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

수상 레저 활동을 위한 영산강 수심 5m 확보를 위해 광주전남 곳곳의 저수지와 댐들의 높이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삶을 잃고 산천 곳곳은 물에 잠길 위기에 있다.

승촌호, 죽산호의 물을 대기 위해 강행되는 저수지 독높임 사업은 국민의 동의와 주민들의 동의없이 추진되면서 전 산하 곳곳을 파괴하고 환경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타당성 없는 4대강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독높이 사업 대신, 기존 저수지의 안정성을 보강하고, 현재 규모에서 저수지의 남은 물을 하천유지용수를 흘려 보내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4대강사업과 함께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저수지 독높임사업도 당장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2010. 8. 5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논평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 발표에 따른 논평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가 11일 민주당의 '진짜 강 살리기 최종 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대규모 준설사업과 대형 보를 건설하는 MB식 4대강사업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하고, 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MB식의 운하용 수량 확보가 아니라 수질 개선 사업이 우선시 돼야 하며, 4대강 분류가 아닌 재해에 취약하고 정비가 시급한 지천과 소하천을 대상으로 강의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안도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영산강살리기 대안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직접 및 집중투자, 보건설이나 대규모 준설대신 상류 4개댐 방류량 확대 그리고 강변저류지 등을 조성하는 치수 이수 정책을 제시 했다. 현 준설계획을 중단하고 영산호 퇴적토 제거, 해수 유통 등 수질개선과 나주시 등 통수에 문제가 되는 지역 구간에서 일부 준설을 하되 필요한 구간은 현지 조사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대안책은 이명박 정부가 일정 수심과 수폭을 유지하기 위한 물확보용 준설과 보건설을 필두로하는 대규모 강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강 살리기, 치수이수 대책 안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민주당에서 제시한 대안을 포함한 여론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대안논리 운운하며 사업이 중단되면 큰 재난이 올 것처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멈추고, 대통령이 바라는 강살리기가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강살리기를 더 늦기전에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준설과 보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한 총력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등 4대강사업 추진측은 민주당이 4대강사업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수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소속인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4대강사업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박준영지사를 든든한 응원도구 삼아 4대강사업이 타당한 낭 선전하고 있다.

4대강사업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이 대안논리와 함께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활동전선에서 한발 물러서게 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MB 4대강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은 MB 대운하식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해 어떻게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관철시킬 것인가에 있다.

2010년 8월 11일 /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결의문

“ 4대강사업 강행 이명박 정부, 박준영 도지사 규탄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동의 날 1차대회 결의문”

생명, 평화, 민주주의 민생 수호를 위해, 국민의 힘으로 4대강사업을 반드시 중단 시킬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4대강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4대강 사업은 금수강산 우리의 국토를 난도질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재정을 파탄내는 위험한 사업임을 국민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말 바꾸기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 하여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한 채 토건 세력들을 위해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들 의사는 인중에도 없고 오로지 토건 세력들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토건 세력과 결탁하여 무책임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중앙 정부에 동조하여 4대강 사업 전도사로 전락한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한 단체장, 지방 의원들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검증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즉각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4대강사업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2011년 4대강죽이기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야 한다. 영산강사업 강행을 강변했던 박준영 지사와 단체장, 지방 의원들도 지역민들에게 사죄하고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중단을 통해 절감하는 예산을 양극화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 사회의 지역과 계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 통합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전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토목 사업을 위해 추진되는 영산강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제대로된 강살리기 그리고 소외 계층을 돌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4대강 사업 강행으로 발생하는 더 이상의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며 역사적 책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집결된 역량을 바탕으로 반드시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막아낼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오늘을 4대강 사업을 저지하고 영산강을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기 위한 범국민운동의 새로운 출발임을 선언한다. 오늘 전국에서 개최될 4대강 사업 저지 결의 대회는 우리의 국토를 보전하고 생명 존중의 길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다.

생명, 평화, 민주주의, 민생 수호를 위해 범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4대강사업을 중단시킬 것이다.

2010년 9월 11일 /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광주전남 범시민 행동의 날 대회위원회

성명서

이낙연 의원은 4대강사업(영산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가 17일 오후 2시 화순 하나옴문화센터에서 있을 예정이다.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는 민주당의 지역 대표로서 지역의 상징과 지도력을 갖는 인물을 선출하는 의미를 갖는다.

‘4대강사업중단 광주전남 시도민행동 대회위원회’는 위와 같은 의미를 갖는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에 이낙연의원이 출마한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차기 전남도당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이낙연의원은 작년 국회 농림식품수산물위원회 위원장인 당시, 2010년 예산 심의 과정이었던 2009년 12월 14일에 4대강사업의 한축인 저수지 증고 사업 예산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전력이 있다.

당시 조선일보가 이 일을 두고 ‘국회 농수산물위원회가 일으킨 희망적 사건’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신는 등 조중동의 찬사가 대단했다. 한나라당은 ‘이낙연 의원의 소신행보’라는 치하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4대강사업 예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낙연 의원을 배우라’는 충고까지 했다.

저수지 증고 사업은 정부의 주장대로 물부족,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는 사업이다. 4대강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산강 등 4대강 수심을 5~6m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보건설과 연계된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이 역시 4대강사업이 운하전초 사업이라는 판단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저수지 증고가 농지와 문화유적지 등을 수몰 시키는 등 주민피해를 키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저수지 개선이 필요하고 절박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한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국민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준 결과를 낳았고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해 거대 여당을 상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절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최근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4대강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 이낙연의원은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4대강사업에 대한 이중적인 행보를 국민들은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영산강사업을 포함한 4대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앞에서는 반대, 국회에 들어가서는 찬성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해 온몸으로 싸우고 있는 야당의원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민심을 저버린 처사이다.

이런 행보라면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MB 4대강사업은 반민생 환경사업이다. 단군 이래 최대토목사업으로, 그간 있어 왔던 개발사업과 비교 할 수 없는 수준의 거대 개발사업이다. 타당성 검증 등 각종 검토 절차를 건너뛰고 대통령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밀어붙이기’ 만 있다. 흐르는 강물을 막아 강내와 주변을 온통 인공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이 개발사업을 정부는 ‘살리기’ 라고 포장하고 있다. 이런 사업에 막대한 국민혈세가 쏟아 부어 지고 있는 것이다.

영산강사업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영산강에 죽산보 승촌보를 만들어 영산호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영산강사업이다. 흐르는 물을 막아 수심을 깊게 하여 영산강을 살리겠다는 대책이 MB정권의 영산강사업인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은 4대강사업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MB 4대강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진짜 강살리기’ 대책도 제시한 만큼,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시 당부한다.

전남도당위원장 역시 4대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사업 저지를 위해 적극 행동할 인사가 되어야 한다.

2010년 9월 16일 /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동의 날 대회위원회

기자회견문

4대강개발사업 선전부로 전락한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영산강(4대강)사업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4대강 토목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환경부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4대강개발사업 선전부, 협력부만 있을 뿐이다.

○ 준설과 보건설로 5~6m이상 수심을 확보하고 수변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4대강사업의 핵심이다. 이런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이 마치 영산강을 살리는 사업인양 포장되고 선전되고 있으나, 정작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생태계의 악영향에 대해서 환경부와 환경청에서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앞장서서 살리기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지경이다.

○ 2009년 11월 초, 강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될 대규모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그 어떤 제지 없이 초고속으로 실시, 완료되었다. 이는 영향평가의 본래의 취지에 맞춰 실시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운하사업 후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이 본래의 로드맵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 사례가 되고 있다.

○ 2008년 한반도 대운하 추진 당시, 사전절차를 단기간에 모두 마치고 2009년에 공사를 착공 하여 2011년에 완공하겠다는 로드맵이 있었다. 이 구상에 맞춰 작성된 2008년 국토부 문건에,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는 통상 2년 내외의 장기간이 소요 ' 됨으로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구간을 나누어 협의추진하고 협의 과정 등에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의·지원이 필요 '라고 언급되어 있다.

○ 이런 방침과 맥락대로 대운하가 4대강살리기사업이라는 이름만 바뀐채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 임기내 완공이라는 로드맵을 맞추느라,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에 들어갔고, 앞서 영향평가를 완료했다.

○ 지금껏 사례가 없던 영산강 대규모 토목공사의 설계가 완성되기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단 몇개월만에 실시 될 수가 없다.

일예로, 수심 5m 확보 목적으로 실시되는 6공구 대규모 준설만 하더라도, 암반층을 상당 구간 수미터 굴착함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환경영향 평가서에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없다.

이런 공정으로 인한 변화가 생태계, 인근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판단은

물론 대책도 없어, 향후 닥칠 악영향을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 준설과 보건설로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대단위로 침수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하고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 영향평가서에는 야간 그리고 동물 산란기 등에 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놓았으나, 공사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하지 않았다. 오히려 환경부장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관계자를 격려 하고 있다.

영산강의 대부분 습지를 없애고, 모래자갈을 대량 파내고, 물줄기를 가로막고, 강주변을 공원화 하겠다는 정책을 강을 살리는 정책이라고 동조하는 것이 현재 환경부의 모습이다.

○ 이전의 환경부가 규정했던 하천정책과 전혀 상반된 4대강사업을 앞장서서 홍보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가 직무유기를 넘어 강죽이기사업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규탄받아야 한다.

○ 영산강사업(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실시되지 않았다. 오로지 대운하사업의 다른 이름인 4대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형식적 흉내만 냈을 뿐이다.

○ 정부는 더 이상의 국토환경파괴를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사전환경성검토부터 다시 실시해야 한다.

만일 이대로 4대강공사가 진행되어, 국고를 탕진하며 우리나라 생명 줄기를 죽이는 참사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환경부는 역사에 더 이상의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환경평가부터 제대로 시행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0년 10월 19일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기자회견문

4대강 운하공사 중단 촉구 및 박준영지사 규탄 기자회견

**영산강 운하공사 더 이상은 안된다. 속히 중단하고
강살리기 대책 모색하라!**

■4대강사업(영산강사업)은 운하사업이다.

현 정권의 '영산강살리기사업'은 영산강에 수천톤의 유람선을 띄우기 위한 사업이다. 수천톤 규모의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수심 5m 이상을 만들기 위해 수미터 강바닥을 파내고, 보라는 이름의 댐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하굿둑 통선문 반영 논의가 운하를 더 구체화 하고 있다.

박준영지사는, 타당성 없는 이 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게 검증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는커녕 뱃길사업이 본인의 소신이라며 적극 찬동하고 있다. 다른 강과 연결하지 않으니 운하가 아니라는 주장은 너무 궁색하다.

■정작 진짜 수질개선 대책은 뒷전이다.

4대강 수질대책으로 추진한다는 총인처리시설 설치 실적을 예산집행액(2010년 11월 현재)으로 보면 전라남도는 전무하다. 결과적으론 전남도는 수질개선 흉내도 내지 못했다.

환경부가 4대강유역에 346개의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해 상수원 보호구역과 4대강 수변구역 폐수 방류수의 총인 농도를 기존 4ppm에서 0.2ppm 이하로 낮출계획임을 밝혔지만, 이에 반영된 예산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영산강은 고작 483억원이다.

1개소당 약 14억원 풀인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하수처리장 탈인설비를 설치할 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인을 제거하기만 하면 방류수역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도 허구이다. 4대강사업과 상관없이 이전에 수립된 2015년까지의 단계적 영산강수질대책 사업을 2012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야심차게 밝혔지만, 예산투입 가능성은 묘연하다. 영산강 거대한 공사와 함께 막대한 수질개선 예산투입을 전제하더라도 4대강사업 완료 후 BOD가 고작 0.2ppm~ 1ppm 낮아진다는 것이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자료다. 이것으로 획기적으로 강이 살아난다고 선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 4대강사업을 찬동한 박준영지사는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정부가 분석한 영산강유역내 수해상습지 44개소 현황으로 보면 단 한곳만 '본류배수위 상승'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본류 강바닥을 파내면 고질적인 지천의 수해까지 다 막을 수 있다식은 식의 주장은 가당치 않다. 오히려 보를 만들고 나면 상시 수위가 올라가 홍수에 더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 현재 영산강 강변 주민들은 이대로 보를 만들려면 배수펌프장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치수 사업 99%가 이미 완료된 영산강 본류에, 4대강사업이 때문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강바닥을 파내고 물길을 가로막는 보를 만드는 것은 수천톤 배를 띄울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수질과 생태계는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정작 전남도가 영산강수질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오로지 강바닥을 파내야만 강이 살고 배가 다녀야 경제가 산다는 헛된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전남도가 앞장서서 4대강사업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 영산강운하공사를 속히 중단하고, 강살리기 대책을 모색하라!

영산강 보 공사장을 중심으로 강 전체가 파헤쳐지고 있다. 거대한 보가 세워지고 있고 강 바닥과 둔치가 수미터 깊이로 파헤쳐지고 있는 영산강은 처참하기만 하다.

4대강사업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질, 가뭄, 홍수, 경제 대책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키우며 세금 먹는 블랙홀이 될 것이 명백하다.

정부는 이미 진행된 사업이라 중단할 수 없다며 속도를 더 내고 있지만, 타당성 없고 위험한 사업은 하루속히 중단해야만 한다.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정부가 진실로 수질, 가뭄, 홍수 경제 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국민, 지역민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제 2011년 국가 살림을 국회가 심의하는 시기이다. 망국적 4대강사업에 더 이상 국민 혈세가 투입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4대강 운하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모든 연대의 힘을 모아 싸워 나갈 것이다.

2010년 11월 05일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성명서

정부와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고흥, 해남 등의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1월 26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전남 고흥과 해남, 경북 영덕, 강원 삼척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들 4곳 중 희망하는 자치단체로부터 ‘유치신청서’를 접수받아 2곳의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고 한다.

지난 10월경부터 한수원과 정부로부터 신규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에 대한 움직임이 알려진 이후, 거론된 지역들은 핵발전소 반대 대책위를 조직하고, 군수 면담 등의 반대 활동들을 전개해왔다.

정부와 한수원에 의해 후보지로 선정된 고흥과 해남 역시, 지역내 대책기구들이 결성되어 핵발전소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이들 지역은 1998년 주민들의 핵발전소 반대 활동과 요구에 의해 군사정권 시절 지정된 핵발전소 후보지에서 해제된 바 있는 지역이다.

이번 신규핵발전소 부지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산업 위주의 전력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핵발전소를 26%(06년)에서 2030년 41%로 확대하는 계획이 ‘녹색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계획의 문제에 대해 지적해 왔음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자신들만의 시나리오에 의한 후보지 선정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후보지 지정을 위한 관련 용역들이 완료되었음에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채 후보지 4곳을 발표함으로써 정부와 한수원의 추진과정이 여전히 비공식적 접촉과 밀실행정을 통해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부안사태로 불리는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선정과 관련하여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핵시설의 부지의 지정이 지역에 불러오는 파장은 경험한 바 있음에도 지역간의 갈등,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진보연대는 현 정부의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계획은 철회되어야 하며, 이번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 역시, 취소되어야 함을 밝힌다.

정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희망인양 호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치 신청을 받아 결정하겠다는 반민주적, 반환경적 방식으로는 지역민의 동의도 국민적 동의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지역 간 갈등과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여 정부와 한수원이 얻고자 하는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지정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파괴하는 길임을 직시하고, 고흥, 해남 등지의 반핵운동과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0. 11. 28 _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 / 광주전남진보연대

기자회견문

4대강예산친수구역법 날치기 한나라당, 이명박대통령을 규탄한다!

12월 8일 이명박정권이 국회에서 저지른 만행을 규탄한다.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명박대통령의 하수인을 자처한 한나라당의원들이 주도하여 ‘친수구역활용특별법(친수법)’ 과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 을 날치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친수법과 4대강예산의 경우, 분명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강력한 주장을 묵살하고 여당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다.

수자원공사 투자비가 포함된 총 9조 3,047억원의 국민세금이, 운하 맹신자 이명박대통령에 뜻에 따른 한나라당에 의해 강탈당한 셈이다.

이번에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사업의 핵심 법안으로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강을 살린다는 사업이 결국은 운하용 수로를 만들고 주변을 개발할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을 최소한의 논의절차 없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그리고 날치기로 의결했다.

이로 민의의 전당이자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국회와 국민의 권리가 유린당했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심을 거스르고, 국토에 재앙적 훼손을 초래할 법안과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이는 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를 보전하겠다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국토와 국가세금을 집권여당, 권력자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 및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 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 이명박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우리는 국회와 민의를 유린한 정치세력에게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이 일에 앞장 선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이 사태에 참여한 인사들을 기록하고 민심을 저버린 응당의 댓가를 분명 치르게 할 것이다.

- 시민들과 함께 이사업을 강행한 모든 주체들에게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정당한 절차, 국민의 뜻을 어겨가며 강행되는 4대강사업의 정당성은 그 어디에도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토를 파괴한 모든 책임자는 역사의 죄인이다. 분명한 죄값을 물을 것이다.

- 4대강사업을 막기 위한 행동을 다할 것이다. 강살리기라는 거짓 이름으로 밤낮 없이 속도전으로 강행되고 있는 4대강 공사현장은 이명박대통령의 광적인 운하집

착만 보여주고 있다. 파괴를 중단시키고 강을 복원하고 살리는 일에 모두의 힘을 모을 것이다.

2010년 12월 10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 광주시의회 4대강사업 특별위원회

논평

‘전남 함평2지구 영산강살리기사업 첫준공’ 보도에 따른 논평

최근 전남 함평 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공이 영산강살리기 사업 첫 준공이라는 제하로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심명필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준공식을 치렀다고 하니, 영산강살리기사업의 일환임을 강조하고자 했던 의도가 크다.

그러나 함평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이전 준비단계를 거쳐 2006년에 공사를 시작한 사업으로,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영산강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국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왔던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이었다.

둔치에 콘크리트 주차장 등이 설치된 함평천을 자연적인 하천생태환경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당시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만 보더라도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하며 자연스런 여울과 소 등을 유지하도록 했다. 과도한 준설도 없고, ‘기존 콘크리트 보의 경우 하천의 연속성과 생물의 분산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제거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등, 자연 하천으로의 복원을 우선하고자 했음을 알수 있다.

그런데, 현재 4대강사업은 본래 자연수심이 60~90cm인 구간까지 수심 5m를 만들기 위해 과도한 준설과 거대 보를 만들고, 토목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하천을 인공하천화하는 사업이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 전후 비교 사진으로 함평천 사업 조감도를 예로 들면서, 4대강사업이 마치 거대 토목사업이 아닌,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인양 이미지 선전을 하고 있지만, 이는 4대강사업의 허상과 허구를 증명하는 꼴이다.

영산강공사현장만 보더라도 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도저히 볼수 없다. 암반층 아래 까지 수미터 굴착을 하면서 하천복원 수질개선사업 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비겁하게 4대강사업의 허상을 선전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대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최악이다.

우리는 4대강사업을 막기위한 행동을 다할 것이며, 이대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이사업을 강행한 모든 주체들에게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10년 12월 8일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10대 환경뉴스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0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장흥)은 한 해를 뒤돌아보고 이후 지속가능한 녹색 광주전남의 길을 모색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2010년 한 해 동안 광주, 전남지역의 주요 환경현안으로 부각되는 사안 중에서 10개를 선정,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를 선정, 발표하였다.

광주 전남의 공동 환경현안으로 3개(영산강사업과 기후이상으로 인한 피해, 자연친화적 체험관광 안착) 광주 3개, 전남 4개가 선정되었다.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논란과 갈등으로 이어질 사안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2010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는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국민의 가장 큰 저항을 받고 있는 4대강사업의 영산강 사업 강행이 최대이슈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핵발전소 후보지로 고흥과 해남이 선정되면서 지역의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 선정 논란과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리산, 월출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기후변화 충격으로 인한 광주전남 농작물 피해 심각 ▶상무소각장 이전 결정, 주민 갈등 재점화 ▶ 기업과 정부가 책임 떠넘기는 광양만권 환경분쟁, 광양 동호안 오염 문제 ▶해양엑스포 앞두고 여수신항 해수유통 추진여부 갈등 ▶도시경관 및 지방재정 문제로 인해, 도시철도 2호선 전면 재검토▶광주광역시의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느림과 성찰형 자연친화적 체험관광 안착 등이 선정되었다.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MB의 4대강사업인 영산강 사업 강행에 따른 저항/ 광주, 전남
- 4대강 사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에 승촌보, 죽산보 건설, 대규모

모 준설, 저수지 독 높임사업, 하구독 배수문확장 등 대형 토목공사가 본격화 됐다.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담양습지가 훼손되고, 광주호 독높임 사업은 가시문학의 산실인 식영정·송강정·환벽당 등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와, 광주시가 2006년 135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광주호 생태공원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초래할 예정으로 시도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과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한편 박준영 전남도지사, 최인기 국회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영산강 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태도가 민주당 당론과 위배되는 행동이어서 시·도민을 비롯해 당 안팎으로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 4대강 사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 한수원 전남 고흥과 해남을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 논란/ 전남

- 지난 11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신규 원전 후보지로 전남 고흥과 해남, 강원 삼척, 경북 영덕 등을 일방적으로 선정, 관련 지자체에 유치신청을 요청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신규 원전입지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용역의 결과나 선정이유, 안정성 관련 내용, 최종 결정과정 등 어떠한 내용도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해 발표한 것이어서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인 고흥과 해남 주민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며 핵 위협의 불안감을 안고 살게 하는 핵발전소건설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핵발전소저지 대책위를 구성, 이에 대한 저지 활동을 하고 있다.

3.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리산, 월출산 등 국립공원 파괴 우려/ 전남

- 주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케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10월 개정됨에 따라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해 왔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재점화 되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를 들어 반대해 왔으나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본방침을 의결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지리산과 월출산 국립공원 등 국비 지원을 기대한 관련 지자체들의 설치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국립공원의 핵심부인 자연환경 보존지구에게까지 케이블카를 허용하여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4. 기후변화 충격으로 인한 광주전남 농작물 피해 심각/ 광주, 전남

- 올해 한반도에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였다. 봄철 이상저온과 우박, 여름철 일조량 부족과 가을까지 이어진 무더위, 태풍과 폭우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였다. 특히 국내 농산물 생산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전남의 경우 7천여 농가에서 2천150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고, 2만1천여 농가에서 2만3천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냉해 피해를 입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어서 점차적으로 기후가 정치·사회적 불안요소로 자리매김 될 가능성이 크다.

5. 상무소각장 이전 결정, 주민 갈등 재점화/ 광주

- 지난 7월, 강운태 시장이 임기 내에 상무소각장을 폐쇄하고 이전시키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포항공대에 의뢰한 ‘상무소각장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에서 상무지구 아파트 전 지역을 동일 영향권으로 볼 수 있다는 용역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기 내 폐쇄, 이전을 발표했음에도 광주시는 소각장 이전이나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어떠한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강운태시장이 소각장 이전을 결정한 만큼 용역결과를 토대로 상무지구 전 지역을 오염영향권으로 고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어 해묵은 소각장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6. 기업과 정부가 책임 떠넘기는 광양만권 환경분쟁, 광양 동호안 오염 문제 / 전남

- 광양제철소 동호안(슬래그매립장 이용부지)내에 입지한 인선E&T 지정폐기장이 붕괴된 지 만16개월이 됐다. 이 폐기장은 본래 환경부에서 광주, 전남권역의 산업체 폐기물을 처리할 목적으로 조성했고 약 4년여 환경부의 관리 하에 운영했다가 인선E&T에 매각한 사업장으로 폐기장의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 일체가 환경부에 있음에도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인선E&T가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1년여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임시복구상태에 있다. 무엇보다도 폐기장이 부실하게 조성되고 무리하게 운영되는 전체의 과정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환경부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여전히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인 상태로 동호안 슬래그 매립장이 또 한 해를 보내게 되었다.

7. 해양엑스포 앞두고 여수신항 해수유통 추진여부 갈등/ 전남

- 여수신항의 심각한 바다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수지역 환경단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항 해수유통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여수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호텔, 진입도로 등 각종 SOC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바다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이라는 주제로 추진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항만청, 엑스포조직위, 여수시,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어 여수신항을 비롯해 근본적인 해양환경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도시경관 및 지방재정 문제로 인해, 도시철도 2호선 전면 재검토/ 광주

-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환경단체들은 지상고가 방식의 2호선 건설로 인해, 도시 경관훼손과 건설적자, 운영적자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인해 2호선 추진 중단을 요구하였다. 또한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투자보단 시내버스, 녹색교통으로의 투자를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최근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이후, 광주시 역시, 도시미관훼손과 일조권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철도 2호선의 추진방식과 착공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9. 광주광역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 광주

- 강운태 시장 취임이후 광주시는 ‘도립공원 무등산’ 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담양군을 포함한 지역 시민단체와 교수, 지역주민 등 각계

인사 30명으로 구성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범시도민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무등산보호운동을 도맡아 온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어 온 결과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자연자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이 맞는지 하는 지적도 있으나 많은 시민은 국립공원 승격이 무등산의 환경,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를 더욱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 느낌과 성찰형 자연친화적 체험관광 안착/ 광주, 전남

-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에 이어 광주 무등산 옛길 조성, 순천만 자연을 자원으로 한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신안군 증도 및 담양, 완도, 장흥 등지의 슬로시티 사업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자연자원과 생태자원,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성명서

영산강 준설과 보건설이 하천복원인가?

자연습지를 파괴하고 인공 조경화 사업이 생태복원인가?

환경청은 생명말살 영산강사업을 중단시켜라!

○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로서 생물들의 서식처이며 영산강 수질 정화 기능을 수행해 왔던 영산강습지가 4대강사업으로 처참히 파괴되고 있다.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담양습지 마저 훼손하고 있고 천변습지, 남산습지, 삼지보습지, 담양습지, 월산보습지, 연제습지, 동림습지, 유덕습지, 송정습지, 청동습지, 영산습지, 송월동습지, 오량습지, 월천습지, 터진목습지, 고문진습지 영산강의 자연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환경부가 그나마 보전될 것이라는 구간도 다 파괴되고 있다.

이로, 보호 받아야 할 동식물들이 무참히 죽어나가고 새들은 영산강을 떠나고 있다. 생명의 무덤위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공원, 광장 그리고 운하와 카지노도 가능한 산업, 문화, 주거, 레저, 위락 단지를 만들겠다는 4대강사업이 국민세금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 틀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개발” 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이라며 여전히 4대강 사업에 대한 맹신적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예산 날치기 법안 날치기에 대해 국민 앞에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다.

강산이 황폐해지면 그 민족도 허약해진다는 요지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을 호

도하여 강압적인 4대강사업을 미화하는 그 뻔뻔함에 그 어떤 민망함도 없다.

○ 국토 환경보전 의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토 난개발을 방관, 동조하고 있는 환경청 앞에 모인 우리는 이 나라 정부가 과연 상식과 원칙이 있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부는 자연수로를 콘크리트로 고정시키고 준설과 보를 만들어 강을 인공수로로 만드는 사업을 생태복원, 강살리기, 생명이 깨어나는 강 등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다. 환경부 역시 4대강준설이 강을 옛날 강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파괴현장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그간 환경부가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영산강을 살리고 보전하기 위한 조사자료, 연구자료 이에 따른 대안들을 사장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현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4대강사업에 굴복하여 영산강을 포기한 환경청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 이 정권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4대강공사는 강행하지만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의 다짐과 요구를 밝힌다.

- 영산강 준설과 보건설이 하천복원일 수 없고, 자연습지를 파괴하고 인공 조경화 사업이 생태복원일 수 없다. 환경청은 생명말살 영산강사업을 중단시켜라!

- 예산날치기, 법안날치기, 4대강사업 강행,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이명박정권을 규탄한다!

- 우리는 끝까지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해 싸울 것이다. 강은 우리 모두의 생명줄이다. 강을 지키기위해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계속 고발해 나갈 것이며 사업중단과 대책을 요구하는 우리의 주장은 계속 될 것이다.

2010년 12월 29일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언론보도로 보는 우리의 활동

끝나지 않았다. 영산강 사업 막아내자

광주드림 2010. 3. 4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의 물길은 막혀 가고 있다. 승촌보 공사가 진행되면서 강바닥이 드러났고, 바닥을 더 파내기 위한 암반 발파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영산강 현장. 그 곳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못 생명들의 터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영산강을 생명의 강으로 다시 되돌리기를 염원하는 순례길이 승촌보 현장과 4일 만났다.

지난 25일 목포 영산강 하구언을 출발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생명의 강, 영산강순례단’이 순례 8일째 승촌보 공사현장에 다다랐다.

“걸으면서 영산강이 이렇게 아름답고 다양한 동식물이 깃들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강이 죽어가고 있고, 이 아래 죽산보 현장은 처참하게 파헤쳐져 있었다. 내 마음 속이 다 파헤쳐지는 기분이었다. 도대체 왜 정부는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의평화위원회 김재학 신부의 성토다. 그간 순례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4대강 사업의 실체를 확인했다. 지난 1일 죽산보 공사장 앞에선 100여 명의 순례 참여자들이 ‘4대강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의식을 가졌고, 참여자들 중에는 죽산보 공사의 무지막지함을 목격하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날 승촌보 현장에서도 영산강지킴이 작은 문화제가 열렸다. 광주에서 달려와 처음으로 승촌보 현장을 본 시민단체 활동가, 시민들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원효사 현지스님은 “이 사업은 강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댐으로 강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 영산강 사업 반대에 적극 동참하고, 이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자”고 말했다. 문화제에서 놀이패 ‘신명’은 죽어가는 영산강의 생명들을 위로하고, 진정한 영산강 살리기를 염원하는 풍물굿을 펼쳤다.

문화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 쪽에서는 설새 없이 중장비들이 공사를 진행시키는 데 여념이 없었다. 누구보다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은 승촌보 주변에서 미나리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승촌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수위가 높아지고 물의 속도가 느려진다. 우기 때는 분명 범람해 동네에 재난이 닥칠 것이다. 한 사람의 독선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

고, 우리 후손들까지 이 피해와 아픔을 감당하게 될 이 사업은 그야말로 국민의 생존권을 강탈하는 사업이다.”

주민 김재선 씨는 울분을 쏟아냈다.

영산강지킴이광주전남시민행동 최지현 사무국장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늦은 것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 순례를 통해 영산강 사업 반대의 힘이 결집되고 있다” 며 “현재 사업으로 인한 영산강 주변 지하수위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결과를 15일 예정된 영산강살리기사업 행정소송, 효력정지 신청 소송 두 번째 심리에 자료로 제출할 것이다” 고 말했다.

순례단은 이날 광주 광신대교까지 걸었고, 5·6일 영산강의 시원, 담양 용소까지 걸어 순례를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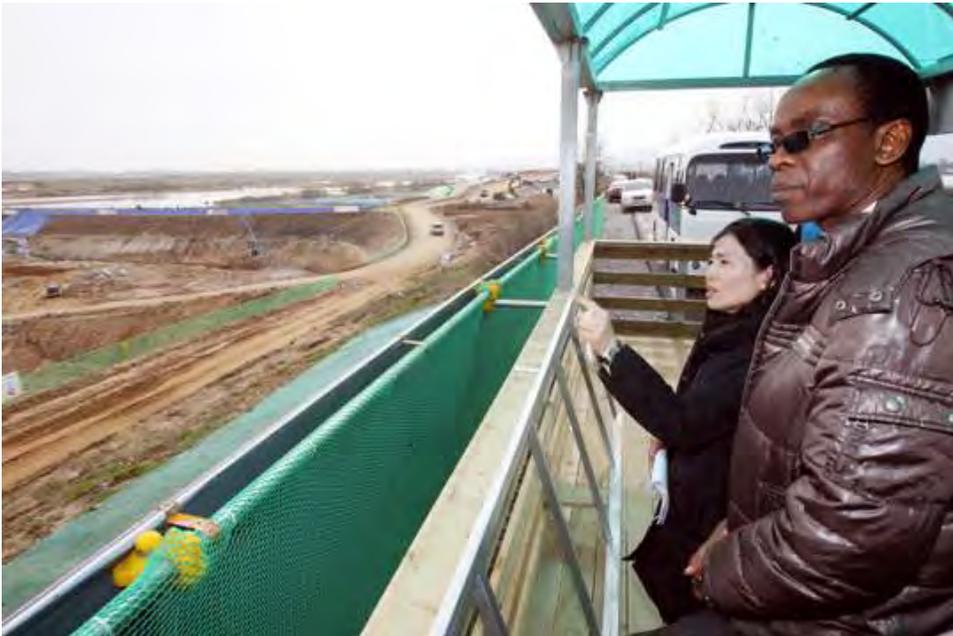
▲4일 승촌보 공사현장 앞에서 놀이패 신명' 이 진정한 영산강 살리기를 염원하며 풍물굿을 하고 있다.

조선 기자 sun@gjdream.com

“강·습지 대규모 파괴... 4대강 사업 안될 일”

- 세계 환경단체 ‘지구의 벗’ 배시 의장
- 영산강 공사현장 방문... “주민 연대를”

경향신문 2010. 3. 18



▲ 님모 배시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이 17일 오후 전남 나주시 영산강 구간인 승촌보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주민들이 연대해 정부와 싸워야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세계 3대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 국제본부의 님모 배시 의장(52)은 17일 영산강 살리기 사업 현장에서 한국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배시 의장은 2008년 대운하 사업 반대서한을 정부에 보내 항의하기도 한 국제적인 환경운동가다.

배시 의장은 이날 광주환경운동연합 간부 등 10여명과 전남 나주시 영산강 승촌보 사업현장을 1시간여 동안 둘러봤다. 그는 강바닥이 대규모로 파헤쳐진 모습을 보고 “우려할 만한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다” 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동행한 광주환경련 관계자들에게 “정부와 주민들 사이에 사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던 일이나” 고 물었다. “공사를 시작하기 5일 전에야 연락을 받았다” 는 답변에 그는 “정부는 늘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떤 깊은 상의도 하지 않는다” 고 정부를 겨냥

했다. 배시 의장은 이어 “당국에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 이라면서 “습지 보전이 정말 중요한데 맞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강이나 습지에서 이런 대규모 파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산된 일에 대해 맞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배시 의장은 승촌보 일대를 둘러본 후 오후 7시 광주 북구 북동 광주환경련 사무실에서 ‘코펜하겐 회의 이후 인류의 과제’ 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20일까지 낙동강·금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배시 의장은 1993년부터 ‘환경을 위한 행동,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사무총장도 맡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지구의 벗’ 은 세계 77개국에서 200만 명 이상의 회원과 후원자를 두고 있다. 세계 5000여개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그린피스’ ‘세계자연보호기금’ 과 함께 세계 3대 환경단체로 꼽히고 있다.

<광주 |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들 '4대강 반대' 서약

박준영 후보는 초청 배제

한겨레 2010. 4. 23



▲ 2010년 지방선거의 광주·전남 시·도지사 예비후보들이 22일 오전 광주YMCA 무진관에서 영산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지구의 날인 22일 오전 11시 광주와이엠시에이(YMCA)에서 영산강지킴이 광주전남시 민행동 주최로 열린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4대강 사업 반대 서약 행사'에 여러 후보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날 장원섭 민주노동당 광주시장 후보,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후보, 정찬용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 박웅두 민주노동당 전남지사 후보가 서약서에 서명했다. 강운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참석하지 않고 대리 서명했으며, 이병환 국민참여당 후보는 서약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약식에는 불참했다.

이들은 대규모 준설과 댐 건설을 핵심으로 한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서약서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영산강 사업으로 편성된 '영산강 사업 특별회계' 등 관련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정부에 영산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며 "영산강 사업 예산을 수질개선, 민생예산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이날 영산강 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서약행사의 초청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 앞서 영산강지킴이 광주전남시민행동은 14일 성명을 통해 "박 후보는 영산강 사업이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인 양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6m 이상의 수심을 확보하는 하천파괴 사업"이라며 "민주당은 엠비(MB) 영산강 사업 전도사인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정대하 기자

시민단체, '4대강 찬성' 전남지사 규탄...천막농성 돌입

광주CBS 2010. 6. 14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영산강 지키기 시민 행동은 14일 영산강 사업 중단 촉구와 4대 강 사업에 찬성한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규탄하며 전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영산강 지키기 시민 행동은 24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 지방선거에서 영산강을 포함한 4대 강 사업을 반대하는 민심이 표심으로 나타났는데도 박 지사가 4대 강 사업을 적극 동조하고 있어 앞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재앙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행동은 특히, 현재 추진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강바닥을 수 미터 파내고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보를 만들어 영산강을 인공 호수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 행동은 정부의 영산강 사업 중단 촉구 및 4대 강 사업에 찬성한 박 지사를 규탄하며 14일부터 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박준영 지사는 3선에 성공한 뒤 기자 간담회를 통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이 오염이 심각한 영산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었다.

김형노기자 khn5029@hanmail.net

영산강 시민행동, "박준영 지사최인기 의원 민주당에 출당 요구"

광남일보 2010. 7.14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박준영 전남지사와 최인기 국회의원 출당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영산강지킴이 광주·전남시민행동'은 14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1개월 간의 천막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박준영 전남지사와 최인기 국회의원을 출당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지사는 막대한 준설과 보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영산강사업이 강을 살리는 지역민의 숙원이라며 현재까지 찬동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제 4대강 저지를 도청앞에서 현장 곳곳으로 이어갈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시민행동은 이날 천막농성을 끝내고 버스편으로 민주당 중앙당을 향의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정 대표가 오는 17일 광주로 내려옴에 따라 철회했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중앙공원을 도시숲으로”

주민 2460명, 광주시에 '조성 계획 재수립' 요구 접수

광주드림 2010. 07. 20

장기 미조성공원이면서도 20년 전에 수립된 ‘납은’ 조성계획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고,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중앙공원의 조성계획을 재수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공식 접수됐다.

‘중앙공원유스호스텔건립반대시민대책위’는 20일 광주시에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92년 수립된 중앙공원 조성계획은 과도한 시설물 위주로 계획되어 있어 주변공간의 변화와 시민들의 이용패턴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광주시는 생태적 특성을 무시하고, 시민 참여가 배제된 18년 전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폐기하고, 장기적·생태적·시민적 비전을 가진 새로운 중앙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공원 조성계획은 광장, 전망휴게소, 수변휴게소, 유희시설지, 식당 및 매점, 주차장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이렇게 과도한 시설물이 공원에 들어서게 되면 공원의 지형과 경관, 공원의 생태성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난개발이 키운 주민의식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의 주민 정책 제안이 진행되게 된 배경에는 그간 중앙공원에 눈독 들인 개발 시도, 부분부분 난개발 되고 있는 중앙공원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공원 조성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민들의 절박함, 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2005년 중앙공원에 특급호텔 건립 시도가 있었고, 지난해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의혹을 받는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됐다. “광주 전체의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조사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이 아닌 중앙공원 내를 전제로 한 일방적이고 비공개적인 개발 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중앙공원 주변 풀뿌리조직, 지역 환경단체들이 연대해 ‘중앙공원유스호스텔건립반대시민대책위’를 만들었고, 이들은 유스호스텔건립을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또 궁극적으로 중앙공원을 광주를 대표하는 도시숲,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세계적인 녹지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이 나서 시에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을 요구해야 한다는 판단에 지난해 12월부터 주민서명작업을 진행해 요구서를 전달하게 된 것이다.

▶재수립 과정 시민참여시켜야

광주 서구 풍암, 금호, 남구 주월동 등 광주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중앙공원은 면적 또한 2939만여 m²(89만평)에 이르러 도시의 허파 기능과 함께 도심의 녹지축, 생태축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번에 조성계획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중앙공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중앙공원

이 광주를 대표하는 녹지공간으로, 도시가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숲으로 조성되길 염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 과정에 시민참여 전제 △광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토지매입을 위한 행정 계획 수립 △재수립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단계별 공원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광주 지역 공원조성에서 시설물 위주의 공원조성 방식에 주민들이 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운태 시장은 광주시장 후보 시절 “중앙공원조성계획을 검토해 재수립에 대한 노력과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를 대표하는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도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어서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재수립 과정에서 시민·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생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요구서에 대해 7일 이내에 대책위에 회신해야 한다.



▲ 중앙공원유스호스텔건립반대 시민대책위가 20일 광주시에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대책위 제공>

조선 기자 sun@gjdream.com

“광주호 독높이면 주변 마을 수몰”

시민단체 ‘레저용 사업’ 중단촉구

한겨레 2010. 8. 5



▲ 영산강지킴이 광주전남 시민행동 회원들이 5일 오전 광주 북구 충효동 광주호 호수생태원 앞에서 “4대강 사업의 일부인 광주호 독 높임 공사 때문에 가사문학의 산실인 충효동 일대가 수몰 위기에 놓였다” 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영산강지킴이 광주전남 시민행동은 5일 광주호 호수생태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호 독 높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가사문학의 산실인 광주시 북구 충효동 일대가 수몰된다” 며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농어촌공사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저수지의 독을 높인다고 하지만 광주호 일대는 가뭄과 홍수 피해지역이 아니다” 라며 “사업의 의도는 영산강에 상시 수심을 5m 이상으로 유지해 배를 띄우고,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 유역의 댐과 저수지에 물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계획대로 706억원을 들여 독 높이를 현재 25m보다 2.6m 높여 27.6m로 만들면 총저수량은 2만890m³에서 2만6530m³으로 늘어나 수심도 2.57m가량 더 깊어진다” 며 “이에 따라 광주호 주변 가사문학관과 생태호수원, 도로, 농지 등이 물에 잠기게 된다” 고 우려했다.

시민행동은 “1976년 광주댐 건설로 자미탄, 노자암, 석병풍, 학산리 마을 등이 수몰됐다” 며 “이후 40여년 만에 시가문화권 일대가 또다시 훼손될 위기에 내몰렸다” 고 말했다.

농어촌공사가 최근 4대강 사업의 하나로 광주호 독 높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자 전남 담양군 남면, 광주 북구 충효동 등지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안관옥 기자

'영산강 지키기' 지역 단체 뭉쳤다

- 90여개 시민단체 + 4대종단
- 광주전남 '행동의 날' 집회

경향신문 2010. 8. 15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진다. 소속 단체별로 개별적·일회성으로 진행되던 반대운동이 하나로 결집되면서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시민행동(시민행동)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90여개 시민·사회·환경·인권 단체를 비롯해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4개 종단은 다음 달 11일 영산강 승촌보 공사 현장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시·도민 행동의 날 대회'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영산강 순례·현장 기도회·서명운동 등으로 반대운동을 벌여온 종교계가 시민단체들에 힘을 보탬 것이다.

각 사회단체들은 '시·도민 행동의 날 대회위원회'를 발족하고, 남은 기간 회원·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펼쳐 대규모 집회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회위원회는 “보와 준설로 귀결되는 4대강 사업은 결국 파괴된 환경만을 후손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라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회위원회는 또 “민주당은 재·보선 참패 이후 4대강 사업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한 채 대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여당과 적당히 타협하려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에겐 공개질의서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고 적절한 후속 대응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회위원회는 이어 “4대강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박준영 전남도지사에게 대한 퇴진운동도 강도 높게 펼치기로 했다” 고 덧붙였다.

시민행동 최지현 사무국장은 “강 살리기는 토목사업이 아니라 수질 개선사업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 이라면서 “가장 강도 높고 치열한 4대강 반대운동이 영산강에서 벌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경향 |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영산강 4대강사업 현장에서 '삶' 발견

YTN 2010. 09. 01



영산강 4대강 사업 현장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삶이 발견됐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오후 영산강 사업 구간인 광주 승촌보 부근에서 몸 길이 15cm 크기의 새끼 삶 1마리가 탈진 상태로 발견돼 동물 보호소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삶이 하천 공사로 서식지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대체 서식지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라”

광주전남 범시도민행동 1차대회 개최 대회위원회 “범시민운동 펼쳐 나갈 것”

광주드림 2010. 9. 12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광주전남 시민행동의 날 대회위원회(대회위원회)는 지난 11일 영산강 승촌보 현장 인근에서 4대강사업 강행 이명박 정부·박준영 도지사 규탄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동 1차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위원회에는 종교, 정당, 시민사회, 노동, 농민, 학계 등 광주전남 2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범시도민 행동 1차 대회는 굵은 비가 내린 가운데에서도 200여 명이 참석해 식전 문화제, 규탄대회, 생명과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108배, 인간 떠 있기 등으로 진행됐다.

대회 참여자들은 영산강사업 4대강 사업중단과 국회에 4대강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증과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또 MB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광주, 경남도 등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와 종교계, 학계 등과 소통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대회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검증도 없이,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한편 사업 강행을 강변했던 전남지사와 지역 단체장은 지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의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판단한다”면서 “오늘을 4대강 사업을 저지하고 영산강을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기 위한 범국민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회위원회는 “국민의 혈세로 국토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생 파탄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사업중단을 위한 총력행동을 9·11대회를 분수령으로 하여 향후 범시민운동으로 펼쳐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회준비위 공동위원장인 현지스님도 대회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시대적 착오”라며 “강 살리기라는 미명아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수질 개선에는 뒷전인 채 보를 세우고 강을 준설하는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과 복지는 파탄내고, 뭇 생명을 죽이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거짓

말에 맞서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 이라고 했다.

특히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시·도민은 다 알고 있는데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왜 앞장서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면서 “사업을 제대로 진단하고 오염방지 대책을 세우고, 상류와 지천부터 정비할 것을 현 정권과 박 지사에게 준엄하게 요구한다” 고 덧붙였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피 맺힌 심정으로 우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면서 “오늘 대회가 끝이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중단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 이라고 했다. 또 “박준영 도지사가 4대강 사업에 찬성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면서 “박 지사는 시·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



▲ 광주전남 시도민행동 대회위원회는 11일 오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영산강 승촌보 공사 현장 인근에서 4대강 사업 강행 규탄 범시도민 1차 대회를 연 뒤 참가자들이 학산교 다리 위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108배를 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gjdream.com

홍성장 기자 hong@gjdream.com

중앙공원서 10일 온실가스 10% 감축 캠페인

뉴시스 2010, 10, 08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오전 10시 서구 중앙공원 풍암저수지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10/10 글로벌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10/10 글로벌 캠페인'은 2010년 10월10일 오전 10시10분에 맞춰 온실가스를 10% 감축하자는 의지를 표현하는 전 세계 공동행동캠페인이다.

이번 공동캠페인에는 전 세계 152개 국가에서 약 6000여개의 이벤트가 계획돼 있다.

중앙공원에서 펼쳐지는 공동캠페인에서는 태양광조리기 등을 체험하는 행사와 함께 각종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persevere9@newsis.com

'저탄소 아시아' 실현 한·중·일 3국 책임 막중 '기후정의실현 위한 2010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

광주드림 (2010. 11. 23)

한·중·일 3국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연대' 하고,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자는 광주 회의가 열렸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조선대에서 열린 '기후정의실현을 위한 2010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 이다.

이번 포럼에는 동아시아 주요국가 중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 일본 등 3개국의 시민·NGO·전문가·행정이 함께 모여 기후보호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자치단체·NGO의 사례를 공유하고, 각 분야에서의 연대를 모색했다.

한·중·일은 이번 광주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인식했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행동할 것을 다짐하는 '광주 선언' 을 채택했다.

'광주 선언' 은 우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전의 2도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을 공통의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 총 배출량

의 50% 이상 삭감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국의 시민과 환경단체는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우선 '저탄소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사례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각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탄소 사회 만들기 사례를 수집해 3개국 시민이 지속적으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온실가스 배출의 현황 파악과 공유' 역시 이들이 제시한 실천 강령이다.

'광주 회의' 참가자들은 각 국의 지역, 정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발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화력발전소나 제철소와 같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기후보호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개국 기후 NGO의 교류의 장이 되는 '동아시아기후포럼'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한·중·일 NGO는 기후정책과 탄소시장의 감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과 자금 이전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후 난민'의 실태 등에 대한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시민단체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을 지정, 3개국 시민들과 함께 대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약속했다.



▲ 동아시아 기후보호 포럼' 참석자들이 대회가 끝난 19일 조선대에서 연대'를 결의하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4대강사업 대안 토론회



【광주=뉴스시스】 2010. 11. 26 '한반도운하반대광주전남교수모임'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 주최로 26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NGO센터 강당에서 열린 '4대강사업 중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있다.<관련기사 있음>

안현주 기자 ahj@newsis.com

“U대회를 녹색환경 행사로”

조진상 교수 “정부 환경분야 재정지원 이끌어낼 기회”

광주드림 (2010. 12. 09) _ 홍성장 기자 hong@gidream.com

2015년 예정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광주를 생태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보호포럼이 9일 광주NGO센터에서 개최한 ‘광주 그린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한 전략’이란 포럼에서 동신대 조진상 교수가 한 주장이다.

조 교수는 “친환경적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는 최근 국제사회의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1회성 행사이지만, 행사 개최로 말미암아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지역 환경훼손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 힘입어 지역 또는 도시의 구조나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광주 U대회 개최는 정부의 환경분야 재정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광주시로서는 U대회 개최가 경기장 건설비용을 비롯한 많은 경비가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조치는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면서 “광주시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어떤 부문에 어떤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또 “광주 U대회 개최는 환경도시로서의 광주의 이미지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5·18로 세계 각국에 인권·평화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고 비엔날레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예향의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데 여기에 환경도시,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지구온난화 억제 등 지구환경보전에 앞장서고 있는 도시로서의 광주의 이미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U대회의 4가지 추진방향 중 하나로 환경 유니버시아드를 설정하고 신축 경기장을 최소화하며, 선수촌 및 지원시설 설치를 주요 경기장과 근거리에 도심재생과 연계시켜 조성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선수촌 및 지원시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생태시범주거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고,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건설에도 환경친화적 요소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광주 그린 U대회를 위한 환경보전마스터플랜의 수립, 환경지침서의 개발, 환경보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 단계별 환경성 검토의 시행 등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경기장 지붕과 벽면을 이용한 시민태양광 발전소 운동’ 등 각 분야의 시민환경운동과 함께 U대회를 상징하는 특화된 시민참여 환경운동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올해 10대 환경뉴스 1위는 영산강사업

연합뉴스 (2010. 12. 22)

을 한해 광주.전남 환경분야 최대 현안으로 영산강 사업이 선정됐다.

광주와 전남 환경운동연합은 22일 올해 지역 주요 환경 관련 현안 가운데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광주.전남 공동 현안인 영산강 사업 강행과 환경단체 등의 저항이 역시 1위로 선정됐으며 지난달 말 한국 수력원자력이 발표한 신규 원전 후보지에 전남 고흥과 해남이 포함된 것이 2위에 올랐다.

다음 뉴스로는 지난 10월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일어난 지리산, 월출산 등 국립공원 훼손 우려,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광주 상무소각장 이전 결정에 따른 주민 갈등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 ▲책임 떠넘기기 국면에 접어든 광양만권 환경분쟁, 동호안 오염 ▲세계박람회를 앞둔 여수 신항 해수 유통 추진 갈등 ▲도시경관 및 지방재정 등을 고려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광주시의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 ▲광주 무등산 옛길, 전남 슬로시티 등 자연친화적 체험관광 안착 등이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광주.전남 공동 3개, 광주 3개, 전남 4개 현안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며 "대부분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논란과 갈등으로 이어질 사안이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4대강] "영산강사업은 생명말살 사업"

광주인 2010. 12. 29

"생명의 보고, 영산강 습지 다 죽이는 영산강 사업 중단" 촉구

천혜의 습지는 수많은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자연정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그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에 다름아니다. 하지만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영산강 일대 자연습지가 파괴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대강사업중단 광주전남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대표 임낙평)은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말살 영산강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이자 영산강 수질 정화 기능을 수행해 왔던 영산강 습지가 4대강사업으로 처참히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대통령은 ‘친환경적 개발’ 등 4대강사업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을 호도하며 4대강사업을 미화하는 뻔뻔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명박 정권을 비판했다.

덧붙여 공동행동은 “환경청은 4대강사업에 굴복하여 영산강을 포기한 것”이라며 “환경청은 생명말살 영산강 사업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병균 나주 고막원교회 목사는 “영산강은 광주전남 생명의 젖줄이다”며 “4대강사업은 생태계를 살린다는 미명아래 토건사업만을 살리고 결과적으로 사람과 자연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누리 기자 knr8608@hanmail.net

.....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236-2 (북동신협 3층)

T. 062-514-2470 F. 062-525-4294